



경상북도의회  
http://council.gb.go.kr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전화(053)602-5113 전송(053)602-5120  
http://council.gb.go.kr

# 경북 의정활동

GYEONGSANGBUK-DO  
Provincial Council

Vol. 68

| 열린의정구현 |

도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봄 햇살처럼 따듯한  
경상북도 의회가  
되겠습니다.



# 경북 의정활동

GYEONGSANGBUK-DO  
Provincial Council

Vol. 68 Contents

## | 열린의정구현 |

도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04 | 개회사 |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호

## 회기별 주요의정활동

06 | 제245회 임시회, 제246회 임시회

## 의회소식

08 | 의회소식

## 상임위원회 활동

12 | 의회운영위원회 | 기획경제위원회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 문화환경위원회 | 농수산위원회 | 건설소방위원회 | 교육위원회

## 특별위원회 활동

26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특별위원회  
|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 5분 자유발언

32 | 김수용 의원 | 김말분 의원 | 김세호 의원  
| 전찬걸 의원 | 추재천 의원 | 황이주 의원

## 도정질문 답변요지

42 | 이시하 의원 | 김수용 의원 | 심정규 의원 | 황이주 의원

## 의원 동정

46 | 의장단 동정  
48 | 의원 동정

## 어서오세요! 경북!

60 | “경북의 명품 트레킹” 발길이 머무는 어디든 - 경북을 만나다.  
| 맨발로 걸어보자 문경 고갯길 & 영남의 소금강 봉화 청량산

## 언론에서 본 의정활동

64 | 언론보도 | 2011. 1 ~ 2011. 3

경북의정활동 2011. Spring | Vol.68

| 발행일 2011년 5월 24일 | 발행처 경상북도의회 | http://council.gb.go.kr

| 주소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 Tel. 053-602-5113 | Fax. 053-602-5120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개회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경상북도의회회장 이상효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아 제246회 임시회  
를 개최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만

지난 3월 11일, 일본 열도를 강타한 대지진과  
쓰나미로 희생된 분들에 대한 깊은 애도와 함께  
조속한 복구를 기대합니다.

한편, 이를 계기로 우리 지역에 대한 재난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대비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해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제9대 도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구제역  
방역과 사후대책의 공동 마련, 도청이전 추진과  
영남권 신공항 및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유치  
등 현안해결을 위해 집행부와 공동대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왔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일이라면 도의원으로서는 본연의 자세에 충실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3백만 도민 앞에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새해 영농계획 수립,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낙동강살리기 및 도청이전사업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은 물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현장점검 등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추경 예산안과 도정질문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구제역 사후관리 및 도청이전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 제출된 만큼, 각 상임위원회 심사부터 꼼꼼하게 확인하고 체크함으로써 예산에 반영된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정질문을 함에 있어서도 도의원 여러분께서는, 도정 및 교육 행정이 지역개발과 주민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도정 추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고 집행기관에서도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우리 도정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그 어떠한 회기보다 생산적이고 보람있는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3월 16일



# 회기별 주요의정활동

## 제 245회 임시회

- 경상북도의회 제245회 임시회는 2011년 2월 9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2월 18일까지 10일간의 회기 동안 2차의 본회의와 연 17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2월 9일(수)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제24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촉구 결의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 4건의 안건 처리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산회했다.
- 휴회기간인 2월 10일부터 2월 17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2011년도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으며,
- 제2차 본회의는 2월 18일(금)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제245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 제 246회 임사회

○ 경상북도의회 제246회 임사회는 2011년 3월 16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3월 30일까지 15일간의 회기 동안 3차의 본회의와 연 9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정례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3월 16일(수)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제246회 임사회 회기 결정의 건,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등 5건의 안건 처리와 이시하·김수용 의원 등 2명의 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산회하였으며,

○ 제2차 본회의는 3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심정규·황이주 등 2명의 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였다.

○ 휴회기간인 3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 12일간 중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 심사를 하였으며, 5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하였다.

○ 제3차 본회의는 3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제246회 임사회를 폐회하였다.

# 의회소식



이상호 의장은 1월 4일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에게 도청이전 신축비 국비지원 등 경북발전을 위한 당면 현안 사항을 건의했다.

이상호 의장은 1월 18일 경주역 광장에서 개최되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D-100 기념 홍보 현판 점등식에 참석한 후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며 대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했다.

이상호 의장은 1월 25일 민족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인 경주 명확은화민제의 집(경주 구정동)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상호 의장은 2월 14일 경북도의회에서 대구·울산·경남 시·도의회 의장과 해당 기초의회 의장협의회 회장들과 '밀양 신국제공항 유치 사수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대정부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뒤 결의를 다졌다.

이상호 의장은 3월 1일 오전 경북도청 강당에서 개최된 제92주년 3.1절 기념행사에서 지역민들의 독립의식 함양을 위한 만세삼창을 했다.



이상호 의장은 3월 18일 대구시내 식당에서 경북도의회 역대 의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영남권 신공항 밀양 유치와 과학비즈니스 벨트 유치에 역대 의장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 의회소식



황상조 부의장은 2월 17일 경산컨벤션웨딩에서 열리는 '경북도사회복지사업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황상조 부의장은 3월 29일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경북농민사관학교 합동 개강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경북도의회는 3월 30일 오전 도의회에서 전체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일본 중학교 사회교과서 검정 통과에 대하여 300만 경북도민의 마음을 담아 강력하게 규탄했다.





송필각 부의장은 2월 28일 경북도교육청에서 열린 '2011년 2월말 정년퇴직 교원 훈포장 전수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퇴직 교원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격려했다.



송필각 부의장은 3월 21일 경상북도농업인회관에서 열린 「(사)한국여성농업인 경상북도연합회 임원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이임, 신임 임원단에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구자근 의원은 영남권 신공항의 밀양 유치에 위해 3월 9일부터 3월 27일까지 19일간 340km, 경북도의회를 출발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300만 경북도민의 신공항 유치 염원을 안고 달렸다.

상임위원회 활동

의회운영위원회

2011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및  
회의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



윤창욱 위원장(구미)



이정호 부위원장(포항)



강영석 위원(상주)



구자근 위원(구미)



김명호 위원(안동)



김하수 위원(청도)



김희원 위원(칠곡)



나기보 위원(김천)



박권현 위원(청도)



박명훈 위원(경주)



서정숙 위원(비례)



이경임 위원(비례)



이영식 위원(안동)



정영길 위원(성주)



황이주 위원(울진)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창욱)는

### 제 245회 임시회 기간 중인

● 제2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위원장 윤창욱)를 2011년 2월 10일 개최하여 의회운영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도민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했다. 이번 회기에는 2011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와 제2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약과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였다.

● 또한, 강영석 의원은 의회사무처 청소업무 위탁과 관련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예산편성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김명호 의원은 위원회별 각종 현안 업무가 늘어나고 또한 특별위원회가 많이 신설된 만큼 전문 위원실의 행정력 보강을 당부했다.

그리고 제246회 임시회 회기를 3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협의하고 도정질문 및 주요 안전처리를 위한 활동기간을 협의 의결하였다. 마지막 안건인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이정호 부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경상북도의회 회기운영 기간 중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7일 앞당겨(당초 11월 13일에서 11월 6일) 다음연도 예산의 심도있는 심사와 회기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토의 끝에 원안대로 심사하였다.

### 제246회 임시회 기간 중인

● 제2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처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제24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 및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였다.

제1안에 대하여 황이주 의원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의회 30년사 발간 연구용역비에 대하여 지방의회 역사를 기록하는 만큼 사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발간되도록 당부했다.

제2안은 제24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약은 2011년 5월 2일에서 5월 13일까지 12일간으로 결산검사 선임 및 안전처리, 현지확인 등의 일정으로 심사하였으며,

제3안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였다. 정영길 의원은 주요내용을 집행부의 조직이 일부 개편됨에 따라 실국명칭 일부 개편과 환경특별관리단의 상임위원회 소관을 지정하는 내용이라고 제안설명을 하였다.

강영석 의원은 집행부의 기구가 조례에서 개편되면 그 시기에 맞추어서 바로 개편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기구설치에 대한 승인이 난 이후에 인사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김희원 의원도 집행부의 조직개편도 조례, 규칙 개정 후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질책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는 개정 이유와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여 일부 개정 조례 등 3건을 심사·의결하였다.



상임위원회 활동

기획경제위원회

2011년도 업무보고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장경식 위원장(포항)



황이주 부위원장(울진)



김세호 위원(비례)



김희수 위원(포항)



도기욱 위원(예천)



박성만 위원(영주)



박진현 위원(영덕)



윤창욱 위원(구미)



정영길 위원(성주)



한혜련 위원(영천)



황상조 위원(경산)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경식)는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인

● 2월 9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장경식 위원장 외 18 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였다.

경상북도를 비롯한 대구광역시와 울산광역시는 기초과학이 발달되어 과학벨트의 목적 실현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경북·대구·울산 지역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입지선정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이 주요내용이다.

2월 10일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는 기획조정실, 일자리 경제본부에 대한 2011년도 업무보고 및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였다.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시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계획적 재정부운영과 국비 확보를 통한 재정력 확충, 도정주요현안 사업인 경북도청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예산확보 문제 제기 및 행정절차상 차질이 없도록 촉구, 대경연구원 관련 사항은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등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촉구하였다.



일자리경제본부 업무보고 시에는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및 지역물가 관리로 서민생활안정 도모,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 정책 강구 및 살처분지역 지하수오염 악취문제 해결, 침체된 전통시장의 소상인 애로점 등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주요현안 해결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는 도청이전 및 신도시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및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가축 살처분 매몰지의 완벽한 사후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소방력 강화를 위한 인력확보 차원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절차에 소홀함이 없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당부하고 심사의결 하였다.

특히, 경상북도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에 관한 행정·재정적 지원 및 민간기관단체나 기구 등에 대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조례의 제정은 유치활동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하며 시의적절하다는 평가이다.

2월 11일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는 공보관실, 미래전략 기획단, 투자유치본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공보관실 업무보고 시 효율적인 홍보를 통한 도민의 알권리 보장, 도청이전 영남신공항 밀양유치, 낙동강 살리기 사업 등 도정 및 도의회 활동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미래전략기획단 업무보고 시 경북정체성 확립을 통한 브랜드 가치, 녹색섬 울릉도 조성, 식물자원을 이용한 천연색소 융복합산업 육성, 생활형 영어 글로벌 빌리지 구성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들었다. 특히 경산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하여 인접 대학의 인적자원을 이용한 생활밀착형 영어 글로벌 빌리지 구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성공적인 추진 및 타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투자유치본부 업무보고 시 외국인 투자유치 기반조성,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자매단체와의 교류 협력, 신흥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마케팅 지원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외국인 투자자의 적극적인 지원대책 및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의 적극적 유치,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의 적절한 지원계획수립, 경북PRIDE상품의 해외 판매망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제246회 임시회 기간 중인

- 3월 18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는 공보관실,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유치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에서는 경상북도개발공사의 사업 수행능력을 위한 현금출자금 500억원 지원에 대해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경북의 명품 행정도시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재정운동을 위해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당부했다.

일자리경제본부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서는 농어촌 공영 버스 구입지원비에 대해 향후 중앙예산 확보노력으로 오지 및 벽지의 안정적인 버스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고,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심사 시 일본 원전 방사능 유출을 본보기로 원자력 관련 안전대책을 당부 하였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소관부서에 대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주문하는 동시에 예산수립 시 사업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거나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투자유치확대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유치서울센터, 서울지사, 인천도시개발공사를 현지 방문했다.

이번 현지방문에서 기획경제위원회는 투자유치서울센터, 서울지사의 사업추진에 대하여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인천도시개발공사와 경상북도개발공사 및 경상 북도와 인천광역시의 상생발전을 위해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의하고, 제24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상임위원회 활동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11년도 업무보고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권영만 위원장(봉화)



김하수 부위원장(청도)



구자근 위원(구미)



김영식 위원(경산)



김종천 위원(영주)



나현아 위원(의성)



송필각 위원(칠곡)



이경임 위원(비례)



채옥주 위원(포항)



Administration Health &  
Welfare Committee

##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영만)는

###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인

● 2월 10일과 2월 11일 양일간 상임위원회를 열고 감사관실, 행정지원국,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4건에 대해 심사하고 원안가결 하였다.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부서별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특히 2011년도 신규시책 및 역점시책사업에 대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의회의 위상을 강화하였다.

### 제246회 임시회 기간 중인

● 3월 18일과 3월 23일에 상임위원회를 열고 감사관실, 행정지원국,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3월 21일과 22일에는 독립노인전문요양병원 4개소(포항, 경산, 김천, 안동)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하였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산편성 적정성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집중 심의하고 원안가결 하였다.

독립노인전문요양병원 현지확인인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노년기 만성질환이나 장애로 고생하는 노인분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 어르신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애쓰는 노인요양병원의 운영실태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병원운영 관계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열성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상임위원회 활동

문화환경위원회

2011년도 업무보고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세계태권도대회 준비상황 점검 등 주요사업현장 확인



장세현 위원장(포항)



이영식 부위원장(안동)



김기홍 위원(영덕)



김말분 위원(비례)



김창숙 위원(비례)



박병훈 위원(경주)



배수향 위원(김천)



이시하 위원(문경)



이정호 위원(포항)



전인철 위원(구미)



전찬길 위원(울진)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장세현)는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인

● 2월 10일, 문화관광체육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보고와 경상북도문화바우처지원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2월 11일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사업소 소관업무 보고가 있었다.

▶ 2월 10일,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는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난 한해 폭설과 한파와 구제역 등으로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 하면서 금년 한해는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채옥주 (포항) 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문화바우처지원조례 심사가 있었으며 중앙기관에서 문화바우처 관련 법령을 발의 검토 중에 있어 향후 법령 제정 사항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재심의토록 심의보류 의결을 하였다.



## ▶ 2월 11일,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는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사업소 소관업무보고를 받았다. 환경해양산림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구제역 관련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직원들 노고를 치하함과 더불어 구제역 발생 초기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하였더라면 지금같이 전국적 확산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침출수 및 악취의 문제는 국가와 우리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 제246회 임시회 기간 중인

### ▶ 3월 18일(금)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체육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했다.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안 심사에서 금번 추경예산의 수혜 지역이 일정 지역에 편중된 점을 지적하고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지만 시군별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문했으며, 세계펜대회 경주 개최, 국제전통피리 페스티벌 개최 등은 추경예산이 긴급하게 편성되는 성격의 예산인 점을 감안할 때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금년 엑스포가 8월 12일에 개최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추경예산에서 홍보비를 편성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점을 지적하였으며, 기타 관광개발공사 감정평가수수료 문제, 도립예술단의 오지 시·군 순회공연 문제, 경북순환 테마 열차 예산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사에서 구제역 및 매몰지 관리에 노고가 많은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해빙기를 맞이하여 2차 환경오염의 발생을 우려하면서 철저한 모니터링 등 도민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게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 3월 23일(수)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는

환경특별관리단,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와 친환경탄소제로 교육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내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심사가 있었다.

환경특별관리단 예산심사에서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하여 고생하는 집행부 관련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해빙기를 맞이하여 구제역 매몰지 주변 침출수와 악취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으며, 매몰지 자문단 구성시 반드시 농민단체, 축산농가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환경해양산림국 예산심사에서는 구제역 매몰지 주변 사후관리를 위한 상수도 지원 사업비와 구제역 매몰지 관리촉진 사업 등 709억원으로 긴급하게 편성된 만큼, 매몰지 주변 침출수 및 악취 등 도민들의 걱정을 해소하는데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물포럼 유치지원프로그램 제작비, 해외조립 협력 및 임산물 수출시장 조사 사업, 각종 신규 용역비 사업 등 많은 지적과 의견들이 있었으며, 아울러 친환경탄소제로 교육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가 있었다.

### ▶ 또한, 상임위원회에서는

3월 21일부터 22일에 걸쳐 상임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중심의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첫날 3월 21일에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개최되는 현장을 방문,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관련 직원들을 격려하고,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엑스포 공원에서 제19회 세계물의 날 기념식에 참가하여 제7차 세계물 포럼 유치 결의를 다지는 한편, 화물 물류의 메카인 포항영일만항 주식회사를 방문하여 화물 유치 현황을 파악하는 등 관계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이튿날 22일에는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영덕강구항 대계 거리 경관조성 및 생활체육공원 강구축구장 현장 확인을 통하여 강구항 주변 특색있는 경관으로 조성하는데 차질 없도록 당부했다.

상임위원회 활동

농수산위원회

# 폭설피해지역 현장방문, 피해지역 농가위로 및 지역대책 강구,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 확인



이상용 위원장(영양)



박권현 부위원장(청도)



강영석 위원(성주)



김대호 위원(구미)



나기보 위원(김천)



박기진 위원(성주)



변우정 위원(구미)



이왕식 위원(의성)



정상진 위원(예천)



최학철 위원(경주)



한창화 위원(포항)

##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상용)는

### 제244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인

- 1월 6일 포항지역에 내린 폭설(1월 2일~1월 3일)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피해농민들을 위로 격려하였다.

피해가 극심한 포항시 청림동 피해 농가를 방문하여 농민을 위로 격려하는 한편 농민들과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피해 농작물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제245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인

- 2월 21일 경북 울진군 지역에 내린 폭설(2월 11일~2월 14일) 피해 현지를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피해현황을 청취하고 피해농민들을 위로 격려하였다.

피해가 심한 울진군 근남면과 원남면 피해 농가를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고 농민을 위로 격려하는 한편, 이번 폭설피해 농가에 대해 조속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농작물에 대해 사후 관리지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였다.

3월 2일 농수산국 및 환경특별관리단 관계관으로부터 구제역 발생 후 현재까지 방역대책과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대책을 보고 받았다.

Agriculture & Fisheries Committee

## ▶ 먼저 농수산물 규제역 방역대책에 대하여

규제역 발생원인과 초동 대처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보상금 산정기준, 백신의 효능, 매몰 방법의 철저한 분석 등을 질의하고 규제역재발 방지책과 체계적인 방역시스템을 조속히 재정비 할 것을 촉구하면서 피해농가의 생계안정과 축산물의 소비촉진 및 축산기반 붕괴에 따른 경북 축산업 부활방안 등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당부하였다.

## ▶ 환경특별관리단 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하여

매몰지 현황과 사후관리 추진실적, 악취, 침출수 등 환경오염 예방대책을 보고 받은 후 매몰지 사후관리 추진 실태 파악을 위하여 최초 발생지인 안동시 와룡면 서현리 등 2개소 매몰지 현장을 방문하였다. 앞으로 매몰지 주변 환경오염으로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매몰지 사후관리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 제246회 임시회 기간 중인

- 3월 21일 농수산물위원회를 열고 농업기술원과 농수산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다.

## ▶ 먼저 농업기술원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지역특화산학연협력단 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상주 감시험장 가공연구동개축보수공사, 시험연구장비, 유색벼 이용지역홍보상징물설치 사업에 대한 사전 계획성있는 예산편성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충분한 농업관련 국비 확보와 성주과채류시험장 및 청도복숭아시아시험장의 충분한 시험연구장비 구축, 농업기술원에 생태형 유기축산 확산 및 가축질병 예방을 위하여 축산기술지원팀 설치를 건의하였다.

또한 국내의 농업특허 출원과 관련하여 실제로 농가 소득 증대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 농수산물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농어촌 고령화, 고유가 시대에 농업용 연료비 절감 신규 사업을 개발하고 시설원예지역난방시스템사업 등을 확대하여 저탄소 녹색농업을 주도하고 농어업현장 목소리를 경청하여 실효성 있는 농정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지난해 11월 규제역 발생 이후 축산농가의 많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역, 브루셀라 등 가축질병 방역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장기적인 선진형 경북축산진흥대책의 마련을 당부하였다.

고품질쌀브랜드 육성, 농산업 육성을 위해 가공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는 한편, 말산업육성법 제정과 경마단건설사업단 조직 신설로 경북의 말산업 육성과 영천 경마장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였다.

3월 24일에는 영주, 문경지역 농산업 사업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오전에는 영주지역 특산물인 사과, 인삼의 가공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향토산업육성사업장 '영주스타식품개발사업단'을 방문하여 향토산업육성 추진 상황과 애플와인 및 사과가공공장 운영,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영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지역의 우수한 식자재 공급과 안전한 학교급식 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급식센터 관계관을 격려했다.

오후에는 문경지역농업특성화사업장(문경농식품특성화지원센터)을 방문하여 농특산물 가공기술, 사과주스 플랜트 시설, 산채처리 및 저장시설 등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다양한 향토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실질적인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상임위원회 활동

건설소방위원회

도청 신청사 시공업체 선정관련 연석회의 개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현지확인 등



고우현 위원장(문경)



김명호 부위원장(안동)



곽광섭 위원(고령)



김수용 위원(영천)



김희원 위원(칠곡)



윤성규 위원(경산)



이용진 위원(울릉)



장두욱 위원(포항)



장영석 위원(구미)



한재석 위원(상주)



홍진규 위원(군위)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우현)는

제245회 임시회 회기 중

- 건설도시방재국, 도청이전추진단 및 낙동강살리기 사업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통하여 지역균형 개발 및 재난예방, 차질없는 도청이전 등을 위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건설도시방재국 업무보고에서는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과 회전교차로 설치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각종 공사의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점 및 보완대책,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방안을 주문하였다. 또한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과 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행정효율 극대화를 촉구하였다.

도청이전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는 도청이전 추진에 따른 인구 유입효과와 이주민 정주대책, 국비의 최대한 확보, 공정한 보상 등을 주문하고 차질없는 도청이전을 위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업무보고에서는 친환경적 개발 및 자연과 조화된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Construction & Fire Defense Committee

- 또한 소방본부 소관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출동수당 지급기준을 시간 단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수당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김천 및 구미 소방서를 현지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일선 소방공무원의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하고 각종 재난사고 예방과 구조구급활동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비회기 중인 2월 28일에는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현)와 공동으로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언론 보도에서 제기한 도청 및 도의회 신청사 설계·시공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선정 경위를 보고 받고 심의위원 선정과 배점방식 등에 제기된 각종 의혹들의 사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행정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 제246회 임시회 회기 중

- 건설도시방재국, 소방본부, 도청이전추진본부 및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당초 예산보다 세입은 423억원(9.3%)이 증액된 4,975억원, 세출은 811억원(9.2%)이 증액된 9,609억원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세입은 410억원(9.6%)이 증액된 4,699억원, 세출은 798억원(9.3%)이 증액된 9,333억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3억원(5.0%)이 증액된 276억원으로 이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신설에 따른 것이다.

재원별 세입예산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4,228억원(85.0%)으로 가장 많고 세외수입이 352억원(7.1%), 지방교부세 245억원(4.9%), 차입금 150억원(3.0%)이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면 건설도시방재국은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82억원, 울릉일주도로건설 50억원, 도시토목사업 47억원 등 총 433억원(6.7%)을 증액한 6,912억원이며, 소방본부는 인건비 80억원, 피복비 및 출동수당 20억원 등 총 134억원(7.5%)을 증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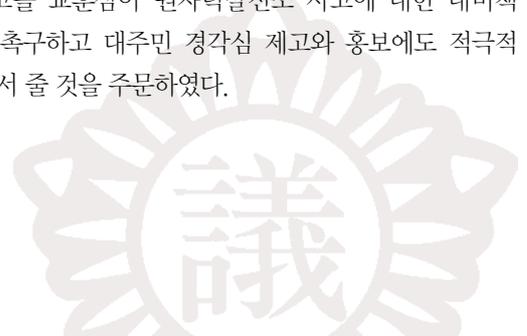
또한 도청이전추진본부는 도청 및 도의회 신청사 건립비 200억원 등 총 204억원(79.3%)을 증액하고,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은 낙동강호국평화공원 조성비 22억원 등 총 27억원(102.1%)을 증액하였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역균형개발 및 재해예방, 도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에 예산심사의 주안점을 두고 예산 낭비의 요인이 없도록 사업별로 심사에 철저를 기하였다.

- 또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현장인 영덕군 달산면 소재 대서천을 현지 확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고충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사업현장 근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완벽한 시공 및 마무리로 수해 등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소방본부로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각종 재난 및 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구조구급활동으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포항남부소방서 및 울진소방서를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소방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특히 울진소방서에서는 일본 동북지방의 지진에 따른 원전사고를 교훈삼아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하고 대주민 경각심 제고와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하였다.



상임위원회 활동

교육위원회

# 2011년도 도교육청 업무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심사



김영기 위원장(청송)



서정숙 부위원장(비례)



김원석 위원(교육1)



박태환 위원(교육5)



심정규 위원(비례)



이달 위원(경주)



최우섭 위원(교육2)



추재천 위원(교육3)



홍광중 위원(교육4)

Education Committee

##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기)는

### 제245회 임시회에서

●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책국과 행정지원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다.

### 2011년도 도교육청 업무보고는

● 교육정책국장과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 육성」을 위한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우리 도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문제점에 대하여 함께 걱정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으며, 보다 나은 교육행정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였다.

### 제1차 상임위 회의(2. 10)에서

●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감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응시자나 검정고시 응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평등교육 이념의 구현,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과 검정고시 응시자에게 응시원서 접수 취소자에게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응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며,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는 의무교육에 해당되는 중학교의 졸업을 인정하는 고시이므로, 이에 응시 수수료 10,000원을 무상으로 하여 평등교육 이념을 구현하고, 또한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 징수방법을 종래 일반교과목과 실기·실험교과목 응시

자에게 각각 25,000원과 35,000원을 원서 제출 시 수수료를 징수함에 따라, 1차에 탈락한 실기·실험 응시자들의 민원 제기가 잇따르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기·실험교과목 응시자는 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10,000원을 추가 징수하기로 한 것으로 이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되게 하려는 합리적인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 제246회 임시회에서

- 상임위 소관 동의안 1건, 예산안 1건을 심사하고 특수학교 등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다.

### 제1차 상임위 회의(3. 18)에서

-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안은 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첫째, 경북 교육청 이전을 위한 토지 취득 건으로 308억 5,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둘째,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건물 취득 건으로 경주 강동초등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 강당 신축 20억원, 경주 불국중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 강당 신축 20억원, 인동고등학교 생활관 신축 30억 3,535만 4천원, 북삼고등학교 생활관 신축 39억 1,864만 4천원 등 총 4개 교에 109억 5,399만 8천원이며,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안동 임동초등학교 소관 임야로서 재산 가격은 임야 21,334㎡에 공시지가 기준 1,109만 3천원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다.

-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규모 3조 526억 4,900만원으로 당초예산 2조 8,470억 2,600만원보다 2,056억 2,300만원 (7.2%)이 증가하였다.

세입부문은 중앙정부이전수입 921억 421만원, 지방자치단체이전 수입 84억 8,553만원, 기타 이전수입 26억 3,445만원, 자체수입 10억 5,599만원, 전년도 이월금 1,013억 4,282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1,579억 2,205만원, 평생·직업교육 부문 15억 6,766만원, 교육일반 부문 461억 3,3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심사에서 금회추경은 당초예산 성립 이후 교부된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금 등의 추가지원에 따른 중앙

정부의 지원금, 순세계잉여금 및 인건비 등 자체수입의 증가분과 사업비 조정 등을 수입으로 편성한 것으로, 목적이 지정되어 배부된 사업은 사업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국가 시책사업과 경북교육 비전 및 계획의 지속적인 추진과 당면한 각종 교육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현안사업 개선에 역점을 둔 것으로,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따라 예산의 조기 집행과 효율적인 집행 및 각종 교육시책 사업 추진을 통해 공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심사결과 세출예산 중 경북학교안전공제회 기금 보조금 등 9건에 19억 9,538만 4천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 증액하여 수정 가결하였다.

### 현지확인(3. 22~23)에서는

- 도내 공·사립 특수학교(7개교)의 교육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 회기에 1차(3개교)로 사립인 경북영광학교와 포항명도학교, 공립인 경주경희학교를 차례로 현안 사항을 확인하였다. 이번 확인에는 도내 대안학교(경주 화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현장 파악과 2010년 포항에서 문을 연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에 대한 의원들의 첫 방문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특히 사립특수학교는 시설 환경이 낙후되어 담당 교사들이나 직원들의 엄청난 노력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이들 학교 재학생에게는 중·고 교육과정을 주입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는 실상을 보게 하였다. 교육위원회는 차기 임시회에서도 나머지 특수학교(4개교)를 현지 확인한 후 도내 특수학교의 현황 파악을 마무리하고 여기서 도출한 문제점들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 연이어 제246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경주에서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와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과의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교육위원회와 도교육청 간의 의견 교환으로 “명품! 경북교육”에 대한 발전 방향 모색 및 상호 협력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도민이 만족하는 선진 경북교육청을 만들기 위해 개최하였다. 행사 첫날에는 전문가 특강 및 토론의 시간이 마련되었고 이튿날은 산행으로 화기애애한 만남의 장을 이루었다.

특별위원회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상북도 및 교육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박병훈 위원장(경주)



정영길 부위원장(성주)



김기홍 위원(영덕)



김영식 위원(경산)



김창숙 위원(비례)



김희수 위원(포항)



나현아 위원(의성)



박태환 위원(교육5)



배수향 위원(김천)



이왕식 위원(의성)



장영석 위원(구미)



정상진 위원(예천)



추재천 위원(교육3)



한재석 위원(상주)



한창화 위원(포항)

Special Committee of  
Budget & Accounts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병훈)는

-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심의를 실시하였다.

### 제246회 임시회 기간동안

-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 교육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여
  - 경상북도 소관 심사에서는
    - 2011년도 본예산에서 편성하였던 5조 4,509억원보다 3,402억원이 늘어난 5조 7,911억원 중에서
    - 구제역 매몰지 관리관 측정설치 6억원, 재해위험시설 보수사업 4억 5천만원 등 12억 9천만원을 삭감하고, 경주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2억원, 포항공항 활성화 2억원, 도시토목사업 2억원 등 12억 9천만원을 증액하여 가결하였으며,
  -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심사에서는
    - 본예산 2조 8,470억원보다 2,056억원이 증가한 3조 526억원 규모 중에서
    - 농산어촌 급식비 지원 15억원, 경북학교안전공제회 기금 보조 3억원 등 19억원을 삭감하고 증액없이 가결하였다.

###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에서는

- 금회 경북도청의 추경예산은 최근 국가적인 재난인 구제역 발병으로 인한 사후관리, 도청이전 본격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사업과 미래성장 동력 확충, 농어촌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고, 교육청의 경우 국정과제 교육분야 사업의 추진, 공교육 강화, 단위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추경심사 과정에서 예산 편성의 목적에 맞게 편성되어 있는지를 집중 심사하였다.

- 또한 심의과정에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는지 여부와 불요불급한 사안이 없는지 확인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노력하고,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며,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투자 사업효과가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하여 도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 심사를 마친 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향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 시행상의 애로점과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으로 예산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다가오는 2010 회계년도 결산 심의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특별위원회 활동

#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특별위원회

## 4개 시·도의회 공동건의문·합의문 채택, 1천만명 서명운동 서명록 전달 및 신공항 건설 백지화 관련 공동성명서 발표



박기진 위원장(성주)



김희원 부위원장(칠곡)



김기홍 위원(영덕)



김원석 위원(교육)



김하수 위원(청도)



나기보 위원(김천)



박성만 위원(영주)



윤성규 위원(경산)



한혜련 위원(영천)



Dongnam Special Committee to  
Attract New International Airport

##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특별위원회(위원장 박기진)는

- 1월 25일 울산광역시의회에서 개최한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 유치를 위한 4개 시·도의회(특위) 간담회」에 참석하여 대구·울산·경남도의회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특별위원장들과 함께 공동건의문 및 공동합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 국회, 국토해양부 등에 제출하였다.
- 2월 7일에는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 유치를 위한 4개 시·도의회(특위) 공동 기자회견」에 특위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3월내 신공항 입지 발표와 밀양이 최적지임을 발표하고 이어 영남권 1,320만명 지역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식발식을 국회 의사당 전정에서 거행하다 국회경위의 저지로 좌절되었다.
- 또한, 제246회 임시회 첫 날인 3월 16일에는 제4차 동남권 신국제공항유치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밀양 유치를 위한 집행부의 특단의 대책과 향후 4개 시·도의회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3월 22일 밀양유치를 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 서명부 및 청원서를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한나라당 중앙당,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 전달하기 위해 상경하여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조원진(대구), 조해진(밀양) 국회의원과 4개 시·도의회 특위위원장들이 함께 밀양 입지선정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 후 박희태 국회의장과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에게 청원서를 전달하였으며, 청와대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을 면담하여 청원서를 전달하였고, 이어 한나라당중앙당과 국무총리실을 방문하여 김형식 총리를 대신하여 농수산해양국토정책관실 백일현

국장에게 영남권 지역민의 염원을 담은 청원서와 760만명(경북 500만, 대구 240만, 경남 20만)이 서명한 서명부(113박스)를 전달하였다.

- 3월 25일에는 박기진 위원장과 김희원 부위원장이 밀양에서 실시한 정부의 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 위원들의 후보지 현지실사 및 공청회 등 환영행사에 참석하여 힘을 보탬으며, 3월 29일에는 4개 시·도의회 신공항 특위에서 공동성명서를 일제히 발표하였으며 발표 내용을 보면 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에서 아직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각종 언론과 정치권 등에서 신공항 건설 백지화, 김해공항 확장론 등 영남지역을 무력화 시키려는 정략적 발언이 연일 터져 나와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1,320만 영남권 주민이 한목소리로 국가백년대계를 담보한 신공항 건설을 염원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정치 논리로 '백지화 해야한다'는 여론몰이 작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날은 박기진(성주) 위원장뿐만 아니라 김희원(칠곡) 부위원장, 김기홍(영덕) 위원 등이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특별위원회 활동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4대강(낙동강)살리기 사업  
제32공구 낙단보 건설현장 현지확인



채옥주 위원장(포함)



구자근 부위원장(구미)



강영석 위원(상주)



곽광섭 위원(고령)



박권현 위원(청도)



심정규 위원(비례)



이정호 위원(포함)



정상진 위원(예천)



정영길 위원(성주)



Special Committee on  
Nakdong River Revival

##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위원장 채옥주)는

### 제246회 임시회 기간 중인

● 3월 29일(화)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민병조)로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이어 오후에는 낙동강살리기 사업 제32공구 낙단보 건설현장을 현지 확인하여 공사현황을 보고 받고 작년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마에보살좌상을 둘러보고 현장 문화재에 대한 보존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 구자근(구미) 부위원장은 낙동강살리기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각종 민원 처리 현황과 낙동강 준설에 따른 적치

골재의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 특히 구미산업공단 내 LCD공장의 경우 비산먼지에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최소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다.

▶ 강영석(상주) 의원은 의성 조문국사적지박물관 건립사업 및 수변생태 공간조성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과 다른 정부사업과 연계성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채옥주(포항) 위원장은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일부 사업이 낙동강살리기사업과 관련성이 적음을 지적하고 업무 재조정을 검토할 것과 안동 및 구미의 습지보전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11년 2월 9일(수)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장사시설 광역화 관련

김수용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영천시)

영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수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고비들을 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인륜지대사라고 하여 관례, 혼례, 상례, 제례 등 사례(四禮)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이 중에서도 상례(喪禮)가 으뜸으로, 그와 관련한 장례 문화가 발달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장례문화와 관련하여 경북도가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사회의 장례문화는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화장'으로, '화장'은 다시 '수목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화장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은 바뀌었고 납골당과 수목장에 고인을 모시는 친환경적 장례문화가 선호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65%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10년전인 1999년 화장률 30.3%에 비하면 약 2배 증가한 것입니다. 경상북도의 경우에도 화장률이 2007년의 경우 44%였다가 2008년 48.3%, 2009년 50%에 이르는 등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출산·핵가족화에 따른 화장인식 개선과 매장공간 부족 등으로 화장률이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의 화장시설은 2009년 현재 10곳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마저도 설치된지 오래되어 태반의 시설들이 노후화되어 있고 화장로 수도 모두 20개에 지나지 않는 등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화장장을 이용하려고자 하는 도민들은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화장장이 없는 경북의 시·군 주민들은 화장장이 있는 현지 주민들에 비해 훨씬 고가의 화장장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내 화장장의 경우 지역외의 거주자가 화장장을 사용하려면 지역 주민보다 최저 2배에서 최고 14배의 차이가 나는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구·경북이 상생 발전하자고 하면서도 경북도민이 대구화장장을 이용할 경우는 대구시민이 지불하는 9만원보다 5배 많은 45만원의 사용료를 내는 것에 대하여 경북도민은 많은 불쾌감과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칠곡군의 경우는 지역은 경북이지만 시설업체는 법인화하여 대구시민을 위한 화장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경북도민의 경우는 비싼 요금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갈수록 매장 위주였던 장례문화가 화장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태에서 대부분 화장장이 타지역 주민에게 더 많은 이용료를 부과함으로써 화장장이 없는 지역주민들은 훨씬 많은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 화장장이 없는 각 시군에도 화장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시군은 화장장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란 점을 인정하면서도 혐오 시설이라며 반대하는 주민들 때문에 화장장의 추가 건립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호 연결한 몇 개의 시·군이 함께 광역 화장장 건립과 운영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경주시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민들의 합의로 경주시 서면 도리 산78번지에 화장로 7기 정도의 현대식 화장장과 장사공원을 건립키로 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영천시의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광역화장장으로서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천시와 경주시가 화장장 광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장사 시설 이용에 관한 협약을 추진하여 중앙과 도로부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받고 영천시 또한 건립비용을 일부



부담하여 경주와 영천시민이 같이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면 경주시로서도 예산절감과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언젠가는 각 시·군마다 최소 1개씩의 화장시설을 갖추어 나가야 하겠으나 그 전단계로 우선 광역화 화장사업의 도입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바 이에 관하여 경북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민들의 장례문화 전반에 대한 인식전환을 유도하는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

하고 나아가서는 경북도가 주축이 되어 도내 23개 시·군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화사업을 통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북도의 미래와 발전을 위하여, 인접 지자체들 간 상생발전 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적 대안을 도 집행부는 심도 있게 검토, 연구하여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1년 2월 9일(수)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저출산 대책 관련

김말분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비례대표)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말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국가·사회적으로 미치는 우려스러운 영향에 대하여 다함께 고민하고, 향후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그와 함께 우리 경북도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해 나아가기 위한 도 차원의 강력하고 구체적인 저출산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저출산문제는 2009년 합계출산율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며, 사회보장 부담을 늘리고, 노동력 부족을 부르는 등 국가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 경북도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합계출산율이 2007년 1.36명에서 2008년 1.31명으로 2009년에는 1.27명으로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방안들을 제시하였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제2차 저출산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경북도 역시 결혼·임신·출산에 유리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다복가정 희망카드 발급, 미혼남녀 커플매칭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 본 의원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출산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에 합당한 현실적 출산장려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저출산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사교육중심의 교육, 일과 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할 육아 지원체계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도는 2010년도의 경우,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각 사업예산이 2009년도에 비해 20.6% 증가한 3,08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임신, 출산, 보육단계로 나누어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씀니다만,

보육단계 사업의 경우 실제 맞벌이 부부들에게 실효성이 있는 아이돌보미사업이 상당부분 축소되는 등의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바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출산의 큰 원인 중 하나인 여성들의 보육환경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서 저출산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 해결의 근본을 오히려 외면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가장 시급한 해결 방안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지원정책의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낳기를 유도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육아 및 보육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도차원에서 자녀양육을 위한 저비용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맞벌이 부부를 위하여 국·공립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직장보육시설을 늘릴 수 있는 다각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보육시설의 대폭적인 확충과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 실질적인 지원마련, 전문 보육인력의 체계적인 양성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젊은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아이낳기 좋고, 기르기 좋은 복지 경북을 위해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2월 18일(금)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경상북도 재정건전성 관련

김세호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비례대표)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경상북도의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2008년의 경우 일반회계 총예산 4조 396억 6천만원 중에서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등을 포함한 경상경비가 1조 7,798억 3백만원으로 44.1%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9년에 45.6%, 2010년에 45.2%, 그리고 2011년의 경우에도 일반회계 총예산 4조 6,625억 3천만원 중에서 경상경비가 2조 1,016억 4백만원으로 45.1%로 되는 등 총 예산에서 경상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날로 늘어나고 있는 사회복지비용도 경상경비화되는 등 경북도 전체예산의 가용재원 비중이 날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해질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더욱이 전체 예산중에서 국비액은 2008년의 경우 2조 1,346억 6,200만원에서 2011년의 경우 2조 5,475억 5,400만원으로 늘어났으나 전액 국비사업은 감소하고 매칭을 요하는 국비사업액은 늘어나고 있어 경상북도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신규사업을 과도하게 추진할 경우에 경상북도의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재정의 문제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세입문제와 매칭사업비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재정운용은 매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깊습니다.

예를 들어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3대 문화권 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국비, 도비, 시군비가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3대 문화권 사업의 도비 지출 부분만을 말씀드리면 향후 10년간 작게는 2,600억에서 많게는 4,350억으로 경상북도 문화관광부문 지출에 대규모 추가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일부 시군의 경우 3대 문화권 사업비 지출이 예상되어 시군의 재정 건전성이 매우 악화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또한 이들 각 시설물들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운영비 역시 지방비의 몫으로 이는 다시 경직성 경비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재정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이며 도청신도시 건설, 동해안종합개발사업 등 대규모 신규사업이 추진될 예정인 경상북도의 재정은 현재와 같은 세입구조에서는 더욱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집행부의 일부 간부들은 자신의 실적을 위해 도비 등 지방비에 대한 고려없이 출신지역 또는 간부 개인과의 관계로 특정지역 및 특정사업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면밀한 검토없이 보도자료부터 돌리고 이후 추진하다 자리를 옮기는 무책임한 한견주의식 행정에 대한 견제장치가 철저히 요구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별로 사업을 분산하고 선택과 집중되지 못하는 사업 배분으로 도재정과 관계없이 신규사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 신규사업의 제안 및 관리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근원적으로 효율적 재정관리를 위해 정책실명제와 사업 사전협의제, 책임완료제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상체계의 개편이 필요 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상북도 재정문제를 효율화하고 동시에 경상북도 지방재정위기관리시스템 도입방안으로서 본 의원은

## 경상북도 재정건전성 관련

경상북도 재정관리위원회와 재정관리센터의 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재정관리위원회는 현재의 투융자심사위원회를 통합한 형태로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와 경상북도 기획조정실 그리고 민간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구성하여 경상북도의 재정관리와 재정관리센터의 운영을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재정관리센터는 KDI공공투자관리센터와 같은 기관으로 도청도, 도의회도 아닌 독립적 기구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경상북도 투자지원업무와 도비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관리를 위한 '타당성 재검증' 등 재정투자평가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도 및 시군재정 운영에 관련된 연구와 관리업무를 통해 경상북도 전체 재정과 관련된 모니터링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기획조정실, 경상북도의회는 기획경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관리를 공동으로 운영·지원하고 센터의 예산과 관리, 인사는 재정관리위원회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먼저 경상북도 재정관리와 관련된 조례를 조속히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경상북도의 재정관련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과 같은 구조 하에서는 경상북도 재정은 앞으로 언제든지 위기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하루빨리 도입하여 재정이 튼튼한 경상북도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년 2월 18일(금)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독도 수호 관련

전찬걸 의원(문화환경위원회, 울진군)



문화환경위원회 소속이며 독도특위 위원장인 울진 출신 전찬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광복 65주년, 6.25발발 60주년, 한·일 강제 병합 101주년이 되는 해로서 과거 치욕의 역사를 되새겨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국토수호의지를 다지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서해의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을 볼 때 한 국가의 영토와 영해를 지키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다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중요한 일인가를 새삼 느낍니다.

현재 동아시아 영토분쟁 지역으로는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쿠릴열도(북방영토) 4개 섬과 중국과 일본 사이의 조어도(센카쿠)가 있으며 특히, 조어도는 최근 중국과 일본간에 분쟁이 첨예화되는 등 국가간 영토분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독도 침탈 정책을 보면 더 노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의 문부과학성에서는 지난해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기한 데 이어, 이번에는 중학교 사회교과서에도 개정작업을 진행하여 3월 말이나 4월 초에 결정할 예정이며, 차후에는 고등학교 교과서에까지 독도를 자국영토로 표기하여 전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저의가 계획적이고, 교묘하게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분쟁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어느 국가와의 외교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차분하고 단호한 외교”를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300만 도민 여러분!

정부차원에서는 “차분하고 단호한 외교”를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다음사항을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역사교과 과목을 필수과목에서 선택 과목으로 변경시켰을 뿐만 아니라, 독도에 대한 교과내용에도 정규과목의 수업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특별시간에 연간 10시간 수업으로 학교장 제량에 맡기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라도 독도에 대한 교과내용을 전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과목 시간에 실시해 주실 것을 교육감께 촉구합니다.

다음은 도지사께 촉구합니다.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독도사료를 체계적으로 연구·조사하고 관리하는 업무가 중요한데 현재 일어를 전공한 전문계약직 1명으로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국제법과 영어에 능통한 전문직 1명과 울릉도·독도의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자연과학을 전공한 전문직 1명 정도를 추가로 보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도내에는 독도를 홍보하는 홍보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껏 독도수호과에 5평 정도의 공간에 독도 모형과 사진 몇 점만 붙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3천여 명의 학생이 홍보관을 다녀갔는데 독도를 관장하는 경북도로서 창피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독도수호과 사무실 전체를 홍보관으로 만들고 차후 도청 이전시 신청사 내에 3백여 명이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독도 홍보관을 꼭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우리 도에서 10월을 “독도의 달”로 제정해 놓고 “안용복 예술제, 독도 영유권 대응 학술 심포지엄” 등 독도에 대한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초·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짓기 대회와 독도자료 전시” 등의 행사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는데 교육감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길 건의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3월 30일(수) 제2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수도권 진학 지역출신 대학생에 대한 지원대책 촉구

추재천 의원(교육위원회, 교육3)

교육위원 추재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북 출신 자녀들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여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 경제가 그만큼 성장한 원동력에는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있어서는 창의적인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가난하여 먹고 살기 어려울 때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털 먹고 아껴서 자녀들을 교육시킨 결과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며, 지금도 대학 입시와 사교육비 등 교육문제만큼은 모든 부모와 국민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지방출신 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연간 천만원이 넘는 비싼 등록금과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증가는 부모와 학생들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폭등하는 수도권의 전월세 값 때문에 지방출신 학생들이 학업보다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고달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당 4천~6천원의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그것도 모자라 하루에 2~3개의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중·고등학교 6년을 열심히 공부하여 진학한 대학생들이

학업은 뒤로 하고 생활비 마련에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학이나 전문적인 공부를 위하여 휴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휴학을 해야 하고, 과중한 생활비 부담을 비판하여 꽃다운 삶을 마감하는 사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월세와 전세의 상승으로 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입소 경쟁률은 평균 3:1로 높은 경쟁을 보이고 있으며, 기숙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지방출신의 많은 자녀들이 대학 주변에서 비싼 월세와 전세비를 내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은 1학기당 60~70만원의 비용을 내면 되지만, 기숙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월 평균 30~50만원의 비싼 월세와, 별도의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2007년에 232명, 2008년에 332명, 2009년에 249명의 대학생이 자살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정신적 문제와 생활 비관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진학하는 경북지역 출신 학생들을 위한 경상북도 차원에서의 지원 시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 시도인,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과 광주, 제주도에서는 서울에 학습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는 영천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 4개 시군이 서울에 학습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군위군에서도 학습 건립을 위하여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출신의 수도권 대학 진학 현황을 보면, 2009년 3,130명, 2010년 3,001명, 2011년 2,720명입니다. 그리고



대학 진학 학생수의 10~12%의 우수한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경북의 지원으로 훌륭한 인재가 되면, 옹도 경북에 대한 자부심과 애향심을 갖게 되고,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선순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은 수도권에 「경북 학습」을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도지사에게 촉구합니다.

도지사께서는 경북 출신으로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학업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학습」 설치 운영 외에도 수도권에 미분양된 아파트나 주택을 장기 임대하거나 매입하여 경북 출신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월세나 전세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에게 쏟았던 교육에 대한 열정을, 이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해야 할 역할과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여 힘겨운 생활비로 고통 받는 우리 자녀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줌으로써,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하여 훌륭한 지역인재가 되어 우리 도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년 3월 30일(수) 제2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원자력 발전소 안전불감증 관련

황이주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울진군)

울진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황이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전 세계를 핵 공포에 빠뜨린 일본의 사태를 보고도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치부하는 듯 안일한 원전 운영과 건설을 해오고 있는 정부와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에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경북도와 의회가 나서서 좀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일본의 사태에서 보듯 원전 문제는 더 이상 원전 소유 지역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에,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측면에서 안전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에, 다시 한 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차원임을 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주민 동의는 커녕 사업 설명회 한 번 없이 도둑 공사하듯 몰래 짓고 있는 핵 관련 시설인 울진원전 증기 발생기 저장고입니다.

(한수원측은 현재 울진 1, 2호기 설비개선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012년 2월까지 길이가 약 16m, 무게가 400t이 넘는 기기를 6개나 보관한다는 계획으로 건축면적 1,756㎡(약 531평), 연면적 1,884㎡(약 570평), 지상고 10m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조를 짓고 있습니다.)

증기발생기는 핵연료 가까이 설치된 터빈을 돌리는 기계(=원자로에서 핵 분열이 일어날 때 열을 이용하여 물을 끓이고 증기를 만들어 터빈에 공급하는)로 방사선량률이 매우 높은 기기입니다.

경주 방폐장에 보관할 폐기물은 직원들이 사용한 옷과 장갑 등 저준위 폐기물인데 반해 이 시설에 보관할 기기는 이보다

방사능 오염도가 훨씬 높은 전원 설비여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수원측은 건축법 등 개별법은 전원개발촉진법 등에 의제처리 되는 현행법을 악용해 지난 2009년 2월 울진 군에 '전원설비 시설물 위치변경'을 한다며 설계도면과 신청서를 제출한 게 고작으로 주민들에게 공청회나 설명회 한 번 열지 않는 등 공론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 시설에 대한 준공 시한은 있어도 보관 만료일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1, 2호기 안에 있는 증기발생기를 뜯어 옮겨와 보관은 하는데 언제까지 보관을 해야 하는 지, 그 후 어디로 옮겨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계획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처럼 설계수명이 40년인 이 시설을 고작 20여 년 만에 교체를 하는 것에는 시설물과 시공 운영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은폐할 목적이거나 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획책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수원측은 또 "연구원의 용역을 맡겨두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처리방식이 최종 결정되면 경주 방폐장으로 이송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이 경우 경주 주민들과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수원의 도둑공사와 안전불감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안선을 따라 조성되는 원전 주 진입도로 법면보호공사도 문제입니다.

일본 사태에서 보듯 지진해일에 대비한 구조물 보강 설치를 해도 모자랄 판에 46억 7천만원을 들여 모래 5만루베(㎥), 사석과 피복석 6만 9천루베, 8t 크기의 테트라포트 1만 4천 300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하도급업체 선정 방식과 기준까지 정해놓고 미관상 이유를 들어 조경수 400그루를 식재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자료와 설계 도면입니다.  
이 결정을 하는데도 주민들은 없었습니다. 일본 열도를 뒤덮은 지진해일도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와 한수원측에 촉구합니다.  
앞에서 제기한 3가지 사업의 전 공정을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구하십시오. 원전사업은 정부와 사업자가 쉬쉬하면서 하던 밀실행정이 아닌 전 과정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해서 추진해야 할 공론화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 내역을 바꾸면 지금 당장 얼마간의 금전적 이익은 남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원전의 안전을 위해 과연 옳은 선택 일까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처럼 가동 자체를 영구히 중단해야 한다면 과연 그것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일까요? 아니 상상조차도 싫지만 그것이 주민들이 떨어야 할 공포감과 생명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일본 사태에서 보듯 우리는 지금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그들이 겪었던 불행의 조그마한 씨앗이 태산이 되어 우리에게 탁칠 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 일은 비단 정부와 한수원 그리고 울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원전 사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설정해 놓은 비상방재구역은 일본 사태에서 보듯 무의미한 수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위해 희생해오고 있는 울진 군민들을 위해, 또한 이러한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을 300만 도민을 위해 경북도와 의회가 나서서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간절히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원전측엔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우리 경북도와 의회엔 주민들의 안녕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지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3월 16일(수)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세계군인체육대회에 관한 사항 및 도 차원의 물관리 관련 등

이시하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문경시)



문)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 지원과 유치 이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지원대책은?

답)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문경시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 및 유치 이후 시설 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문) 경북 북부 지방도사업 현황 및 상주-문경 지방도 997호선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예산확보 및 공사추진계획은?

답) 금년 경상북도 지방도사업 예산은 17,456백만원으로 각 시·군 도로정비기본계획 대비 31% 정도만 예산에 반영되었음. 상주-문경 지방도 997호선 사업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되는 공사로 금년에 521백만원 확보,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2012년도에 더 많은 예산확보 등 본 공사가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문) 구제역 매몰지 주변 침출수 유출 우려 등 도민들이 먹는 물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음. 도 차원의 물관리 중장기적 방향과 실행방안은?

답) 매몰지 주변 정비 및 보강공사(옹벽, 차수벽, 그라우팅 등), 매몰지 반경 300m 이내 지하관정 수질검사, 매몰지 관측정 설치로 유출여부 주기적 모니터링(1회 → 2회 확대) 등 물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

문) 문경시에서 세계정구선수권대회 유치에 따른 예산지원과 성공적 개최를 지원 대책은?

답)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금년 추경에서 운영비 3억 원을 확보 지원 예정임. 기타 정구장 등 시설보수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제정구연맹 및 문화관광부, 문경시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하여 대회를 치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갈 계획임.

문) 봄철 산불발생 건수 중 입산자 실화가 많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답) 입산통제 구역지정(490개소), 등산로 폐쇄(224개소), 산불 취약지에 대한 감시원 집중 배치하고 마을앰프 방송 등 각종 대민 홍보활동을 하고 있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산불홍보 활동으로 입산자에 의하여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

문) 도내 농어촌 지역은 학생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등 학생수급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함. 그에 대한 대책은?

답) 학생 불균형 수급을 해소하기 위하여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교당 3,000만원, '10년 20개교 지원) 및 농어촌 전원 학교 육성 사업('09년 20개교)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농어촌 소규모 학교 육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할 계획임.





2011년 3월 16일(수)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구제역 사후관리 대책 및  
영천 청통골프장 관련 등

김수용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영천시)



문) 구제역 침출수와 매몰지 등 사후관리 대책은?

답) 전국 최초 '환경특별관리단' 신설, 매몰지별 공무원 실명제 도입 등 2차 환경오염 원천 차단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특히 지방상수도 확충은 총 182개 지구에 1,167억원을 투입하여 우수기 전까지 마무리하고, 개소당 약 120만원 소요되는 관측공은 대형 매몰지와 취수원 인근에 3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임.

또한 구제역 피해농가의 안정을 위해 보상금에 대해서는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가축위생시험소 조직 확대에 대해서는 향후 도의회 및 도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조직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임.

문) 도의회 차원에서의 대구경북연구원 운영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방안은?

답) 관리감독은 향후 대구경북연구원의 도의회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추진할 계획이며, 연구성과물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사업 선정을 통한 국비확보, 정책 제안 등에 다방면으로 활용함.

경북의 독자적인 연구원 설립에 대해서는 도청이전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음.

문) 영천 청통골프장 조성관련 재원조달 계획 및 향후 추진 방향은?

답) 청통골프장은 별목공사 및 문화재 시굴 조사가 시행 중이며 2011년 4월 중으로 토지 미보상분에 대한 공탁완료 예정 중에 있음. 총사업비 793억원에 대한 재원은 공사자체 보유 150억원, 지역개발기금 차입 300억원, 분양 수입금 등 343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임.

향후 추진방향은 2011년 3월 중으로 통보 예정인 행안부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

문) 무상급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은?

답) 2012학년도 면·읍지역 초·중학생, 2013학년도 면·읍지역과 동지역 차상위 30%, 2014학년도에는 면·읍지역과 동지역 차차상위 50%까지 무상급식할 계획이며, 재원조달 방법은 총 소요액 534억원 중 교육청 267억원과 시·군에 협조 요청하여 267억원을 확보할 계획임.

문) 교장공모제 관련 현황 및 문제점은?

답) 교장공모제 현황은 2011년 3월 1일 현재 임용 공모교장은 초등 75명, 중등 47명으로 전체 교장의 16.5%임. 문제점은 소규모 학교가 다수인 우리 도는 지원자 부족으로 교장결원 학교수의 40% 이상이 시행이 어려움.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2년도에는 교장결원 학교 수의 30% 축소 시행을 적극 건의할 계획임.





2011년 3월 17일(목)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립미술관 관련사항 및  
체납세 관련 등

심정규 의원(교육위원회, 비례대표)



문) 도립미술관 건립과 미술관을 중심으로 한 종합공원 조성 방안은?

답) 현재 김천시립미술관 등 지역 문화기반시설을 확충 중에 있으나 열악한 재정여건 등 추가 확충에 어려움이 있음. 도립 미술관은 도청이전 신도시 내 복합문화시설 단지 조성시에 갖출 계획임.

문) 도립미술관 건립에 대비한 지역 미술가들의 소장품 및 작품의 관리방안은?

답) 우리 도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훌륭한 작가들이 많이 배출 되었음. 향후 도립미술관 건립 시 전시콘텐츠 확보를 위하여 향토 미술의 조사·연구, 작품수집 및 보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문) 낙동강 사업지구내 습지 훼손 최소화 및 도내 습지 보전 대책은?

답) 낙동강 인근 습지 훼손 최소화를 위해 발주기관과 지방 환경청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공사 일시중단, 야간작업, 월동시기 작업제한 등 노력과 함께 특히 해평습지 일대 보전을 중점적으로 함. 도내 습지 보전을 위해서는 2010년 9월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도내 212개 습지에 대한 실태조사 및 보전을 위한 실천계획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문) 체납세 정리 및 채권 일실방지를 위한 대책은?

답) '07년도부터 3명으로 체납세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전담반 확대 편성·운영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채권 일실 방지를 위해서는 관련법이 정하는 채권확보를 적극 활용하여 조세채권 일실을 방지하겠음.

문) 지방세 감면 운영에 따른 대책 및 지방세 세정신뢰도 향상 방안은?

답) 지방세 감면 축소와 세수보전 대책을 중앙정부와 지속 건의·협약하겠으며, 직무교육과 연찬회를 통한 세무공무원 전문성 강화, 지방세 온라인 납부시스템 조기정착 등 지방세 세정신뢰도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2011년 3월 17일(목)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지진, 원전사고에 관한 사항 및 인사청문회도입 관련 등

황이주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울진군)



**문) 지진대비 도청 산하 관공서 및 일반가옥 내진설계 대비 지역개발세 지원 용의는?**

**답) 지진대비 내진설계 대책을 위하여** 건축설계·허가·공사 단계별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신축건축물의 내진설계 대비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대상으로 지역개발세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 지진 및 원전사고 대비책으로 방사선 비상방재구역 확대와 지진대비 훈련대책은?**

**답)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 의거 8km로 설정하고 있으나, 통제범위를 벗어난 방사선 사고대비를 위해 중앙의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지진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계획임.

**문) 지진 및 해일에 따른 울진 원전사고 관련 대비책은?**

**답) 울진원전은** 원자력본부에서 2개월마다 지진감지기를 점검하고 있으며, 도에서도 시·군과 함께 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지진발생에 대비하겠습니다. 방폐장 방폐물 반입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방폐장 1단계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안심하고 방폐물 반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 경북도와 시군간 5급 이상 인사교류 축소, 벽오지 시군 지역할당제 도입, 공정한 도 전입시험 추진방안은?**

**답) 경북도와 일선 시군간 인사교류에 대해서는** 도출신 공무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있으며, 인사교류 할당제 도입은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제한 및 자치단체간 입장 차이로 당장 실시는 어려우나 계속 노력할 계획임.

벽오지 시군 지역할당제 도입은 울진 등 북부지역의 경우 적절한 지역제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 전입 시험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엄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문) 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과 기관장 임용시 연령제한 및 소속직원 내부승진 의향은?**

**답) 도 산하 출자·출연 기관단체는** 각자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기관장 임용자격 및 임용절차도 개별 조례나 법인의 정관에 따라 임명하고 있음.

관련 법적 근거와 국가공기업과의 형평성, 개별기관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문) 경북도의 소방서 비상대기 숙소 확보계획은?**

**답) 2011년도 소방서 비상대기 숙소는** 400백만원의 예산으로 4개소 17실을 확보할 계획임.



의/장/단

Chair Group



**역대의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영남권 신공항 밀양 유치와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상호** 의장(경주시2, 한나라)은 1월 3일 오전 7시 30분 영천 호국원 현충탑을 참배, 호국선열의 뜻을 새기고 신묘년 새해 업무를 시작하고 구제역 등 지역현안에 대한 발빠른 대처를 당부했다.

1월 4일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에게 도청이전 신축비 국비 지원, 의원 입법지원관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대해 건의했다. 이에 박 전 대표는 새해 인사와 함께 경북도의회 건의사항은 여러 국회의원과 협의해서 경북발전을 위해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월 14일 의장실에서 신기옥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회장에게 2011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커다란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적십자회비 납부에 많은 도민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1월 18일 경주역 광장에서 개최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D-100 기념홍보 현판 점등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한 후 경주시민들에게 대회를 직접 홍보하여 성공개최를 기원했다.

1월 24일 의장단,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인근의 한 식당에서 ‘우리 지역 쇠고기·돼지고기를 먹고, 우리 축산 농가 살리기 시식회’를 가지며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1월 25일 민족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인 경주 명화은화민제의 집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기원했다.

2월 8일 경주 아리원에서 열린 한국고전머리협회 경북도지회장 취임식에 참석, 우리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보존하기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월 14일 경상북도의회 의장실에서 대구시, 울산시, 경남도의회 의장과 해당 기초의회의장협의회 회장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신공항 밀양유치를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협의하고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2월 15일 경주시청에서 개최된 동국대학교 의료관광 힐링센터 건립 업무협약체결식에 참석하여 지역의 의료환경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을 기원하는 축사를 통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월 16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2011년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한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협의했다.

2월 23일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김영중 총장 취임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대학 관계자들과 함께 지방대학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3월 1일 도청 강당에서 개최된 제92주년 3.1절 기념행사에서 지역민들의 독립의식 함양을 위한 만세삼창을 했다.

3월 8일 고령군청에서 개최된 낙동강 희망의 숲 사업설명회에 참석, 낙동강 수변생태경관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축사를 통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3월 16일 주한일본대사에게 ‘일본 대지진 피해 관련 희생자와 이재민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합니다.’라는 서한문을 발송 위로했다.

3월 18일 대구시내 식당에서 경북도의회 역대 의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영남권 신공항 밀양 유치와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에 역대 의장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3월 21일 월성원자력본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원전안전대책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참석, 원전 안전과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3월 30일 ‘신공항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하여 ‘신공항 건설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63명 도의원과 300만 도민의 신공항 건설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경북농민사관학교 합동 개강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황상조** 부의장(경산시2, 한나라)은 2월 17일 경산컨벤션웨딩에서 개최된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장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의 대변자로서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사회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으며,

2월 26일 대구GS프라자호텔에서 개최된 「제37차 경상북도간호조무사회 정기대의원 총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도민들의 건강지킴이로서 질 높은 건강관리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도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3월 10일 대구문화웨딩에서 개최된 「경상북도재향군인회 제52차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튼튼한 국가안보, 상생과 협력의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기를 당부하고 경상북도재향군인회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3월 21일 호텔인터불고엑스코에서 개최된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2011년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격려사를 통해 여성 권의 신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으며,

3월 21일 한나라당 경북도당에서 개최된 「구제역 방역대책 및 축산업의 미래 토론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구제역 종식에 지속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함과 더불어 철저한 매몰지 환경관리와 축산업의 재건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시름에 잠긴 축산업 관계자들을 위로 격려하였다.

3월 29일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개최된 「경북농민사관학교 합동개강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농촌과 우리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FTA 등 개방에 따른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사)한국여성농업인 경상북도연합회 임원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관계자를 격려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송필각** 부의장(칠곡군1, 한나라)은 1월 25일 구미 GM컨벤션웨딩에서 열린 「전문정비사업조합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정비인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으며,

2월 16일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하여 인사말씀을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위상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단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의원들을 격려하였다.

또한, 3월 2일 STX 문경리조트에서 열린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현지실사단 환영만찬」에 참석하여 대회의 문경유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으며,

3월 21일 경북도 농업인회관에서 열린 「한여농 경북도연합회 임원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여성농업인 지위향상과 복지 농촌 건설에 수고가 많은 여성농업인들을 격려하였으며,

3월 29일 구미 GM컨벤션웨딩에서 개최된 「201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민추진단 발대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장애인 복지의 기초 시설인 편의시설 설치의 중요성과 시민추진단의 역할을 강조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그 밖에도, 「담수회 신년교례회」(1. 12, 담수회관), 「2011년 2월말 정년퇴직 교직원 훈포장 전수식」(2. 28, 도교육청), 「낙동강연안 그랜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최종보고회」(3. 4, 도청 강당)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 의회 홈페이지 안내

<http://council.gb.go.kr>

경상북도의회에서는 대주민 고객 서비스 만족과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하고자 의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다 친숙하고 도민과 호흡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도민의소리난을 만들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또한 본회의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생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방송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아동 복지시설 및 요양시설 등 방문,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기 위한 사랑의 마음 전달

**강영석** 농수산위원회 위원(상주시2, 한나라)은 1월 26일 상주시 소재 아동생활시설 상주보육원, 정신요양시설 청봉산요양원, 노인요양시설 상주보림원 및 희망실버타운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사회,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시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시설 운영에 따른 고충을 경청하고 관계자들에게 향후 소외받는 사회 구성원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노인복지시설인 봄마을과 문경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를 방문, 노인들을 위로

**고우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문경시2, 한나라)은 1월 29일 노인복지시설인 봄마을과 문경시립 노인전문간호센터를 방문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로하고 위문품을 전달하였으며, 시설종사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들을 위로·격려하였다.

또한, 3월 2일 문경리조트에서 열린 세계군인스포츠위원회(CISM) 실사단 환영 만찬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세계군인스포츠대회 유치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3월 15일 영강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노인대학 입학식에 참석하여 신입생 250명의 입학에 축하하고 이를 계기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문화생활 향상 및 여가 선용의 장이 되길 희망하였다.



### 「낙동강 희망의 숲」 조성 행사에 참석, 기념식수를 하고 관계자 격려

**곽광섭** 건설소방위원회 위원(고령군, 한나라)은 3월 22일 고령군 다산면 호촌리에서 거행된 「낙동강 희망의 숲」 조성 행사에 참석하여 기념 식수를 하고 희망 캡슐 행사에도 참여하였다.

아울러, 이번 행사 준비에 노력한 행사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 행사를 계기로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애향심 고취를 통하여 낙동강 유역을 새로운 문화관광지로의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3월 23일 고령군청에서 열린 2011대가야체험축제실행계획 최종보고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경북도의회에서 국회의사당까지 마라톤을 통해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를 기원

**구자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구미시3, 한나라)은 2월 28일 구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구미시 노사민정 어울림 한마당 축제」에 참석하여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함께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3월 9일부터 3월 27일까지는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를 기원하며 대구(경북도의회)에서 서울(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마라톤을 통해 신공항 밀양 유치 필요성을 홍보하였다.



### 「한국농업경영인 봉화군연합회장 이·취임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봉화군, 한나라)은 3월 7일 농업경영인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 봉화군연합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고부가 가치의 농업을 창출하는데 앞장서줄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과 참석자들을 격려하였다.

3월 28일에는 「봉화군 여성단체협의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축사하고 여성의 능력개발과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회원들을 격려하였다.



### 영덕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준공식 참석, 주민의 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 큰 봉사를 당부

**김기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영덕군1, 무소속)은 2월 24일 영덕군 영덕읍 화개리 현지에서 개최된 영덕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준공식에 참석하여 주민의 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보다 더 큰 봉사를 당부하였다.



### 한국농업경영인 구미시연합회 임원 이·취임식 참석,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큰 역할 당부, 고아읍 구은초등학교 강당 준공식 참석, 신바람 나는 학교 조성 당부

**김대호** 농수산위원회 위원(구미시6, 무소속)은 3월 18일 한국농업경영인 구미시연합회 임원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지역농업인의 화합과 단합을 통해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줄 것을 당부하였다.

3월 30일에는 구미시 고아읍 구은초등학교 강당 준공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참석한 교육 관계관들에게 신바람 나는 학교, 행복한 교실을 만드는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포항시 내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도의원 초청 간담회 참석, 현안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 나뉘

**김말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비례대표, 한나라)은 3월 17일 포항시청에서 열린 내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도의원 초청 간담회에 참석, 현안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3월 31일 포항영일만 일반산업단지내 포스코파워 연료전지 스택공장 준공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를 격려했다.



### 안동시 농업아카데미 입학식에 참석, 농촌발전을 위하여 지도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

**김명호**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안동시2, 한나라)은 1월 26일 설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인 안동재활원, 나천요양원, 안동성좌원, 경안신육원 등을 방문하여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격려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로하고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또한 2월 25일 경북북부청사(안동 풍산)에서 열린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정책 간담회에 참석하여 건설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3월 10일 제4기 안동시 농업아카데미 입학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학사일정에서 배운 지식을 기초로 농촌발전을 위하여 지도자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영국 징콕스코리아(주) 기공식」 참석, 행사 관계자 격려

**김세호**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비례대표, 한나라)은 2월 21일 MBC포항라디오 “여론집중” 생방송 인터뷰를 통해 최근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가축사체 매몰지의 시설기준 매뉴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매몰에 따른 토양 및 지하수 2차 오염 문제와 대책방안을 설명하고, 해외 가축사체 매몰 및 처리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특히, 해빙기에 따른 오염 확산 방지대책을 강조하였다.

3월 11일에는 경주 천북산업단지에서 개최된 영국기업 징콕스코리아(주)의 「전기로 제강분진 재활용 플랜트 기공식」에 투자유치자문위원으로 참석하여 투자기업과 관계공무원의 그동안 노고에 축하, 격려하고 아연, 선철 등 유가금속 생산 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영천시 관내 구제역 방역초소를 방문, 근무자 격려 및 위문품 전달**

**김수용**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영천시2, 한나라)은 2월 17일 영천시 관내 구제역 방역초소를 방문하여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였으며, 3월 15일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에서 개최된 구제역 매몰지 악취제거제 개발시연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구제역 매몰지를 둘러보고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악취제거 미생물 개발현황을 청취하고 악취제거 시연도 실시하였다.

또한 3월 21일 국립영천호국원에서 열린 호국영령신위 위패 봉안식에 참석하여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과 공훈을 추모하고 보훈 가족들을 위로하였다.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청취**

**김영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청송군, 한나라)은 2월 28일(월), 3월 9일(수), 3월 17일(목) 3차에 걸쳐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근무여건에 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의회 차원의 해결방안 모색 및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실질적으로 조리종사원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경산삼성병원 개원식」에 참석, 지역민들의 건강과 의료발전을 위해 앞장서줄 것을 당부**

**김영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경산시1, 한나라)은 3월 1일 「경산삼성병원 개원식」에 참석하여 병원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지역민들의 건강과 의료발전을 위해 앞장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3월 17일에는 경산석정온천호텔에서 열린 「경산JC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축하하고 JC 회원들과 참석자들을 격려하였다.



**「포항시 구룡포지역 학교 통·폐합 추진위원회」 참석, 격려사 및 학교 통·폐합 관련 자문**

**김원석** 교육위원회 위원(교육1)은 지난 2월 28일 포항시 구룡포읍지역 학교통폐합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서제원)에 참석하여 격려사와 함께 통폐합 후 학교의 운영 방향 등 현안문제에 대하여 자문을 하였다.

3월 26일(토)에는 도내 초·중·고등학생 중 과학분야에 영재성을 지닌 학생을 선발하여 주말과 방학기간 등을 이용하여 지원하는 경상북도과학교육원 부설 경상북도과학영재교육원(원장 김찬식) 입학식에 참석하여 격려사를 하고 교직원들에게 축하를 하였다.



**「영주 이·통·반장 화합 한마음대회」 참석,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

**김종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영주시1, 한나라)은 2월 17일 영주 순흥선비촌에서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순흥 초군청 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에 참석하여 시민들을 격려하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3월 3일에는 서천둔지에서 개최된 「영주 이·통·반장 화합 한마음 대회」에 참석하여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이·통·반장의 단결된 힘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경산시 도정협력실 개소, 지역발전 활성화 방안 협의창구가 되기를 기원

**김창숙**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비례대표, 민주당)은 1월 13일 경산시청내 도정협력실 개소식에 참석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정보교환과 예산확보, 지역발전 활성화 방안 협의창구가 되기를 기원하였다.

3월 7일에는 진보신당 등 야 4당과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경산삼성병원과 구 경상병원 노조간 사태에 대한 경산시와 시의회의 중재를 촉구하였다.



### 「청도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참석, 새마을 지도자 회원들과 관계자 격려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청도군1, 무소속)은 2월 17일 경산컨벤션웨딩에서 개최된 「경상북도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행사 관계자들과 회원들을 격려하였다.

3월 31일에는 청도읍 고수리 둔치에서 열린 「청도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에 참석하여 새마을 지도자 회원들과 참석자들을 격려하였다.



### 「서민물가안정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참석,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 당부

**김희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포항시2, 한나라)은 1월 3일부터 ~ 1월 6일까지 포항지역의 유래 없는 폭설로 인해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및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피해 농가들을 위로하였다.

또한 2월 22일 「서민물가안정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서민생계와 밀접한 장바구니물가를 시작으로 물가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3월 15일에는 「포항시 양학동 평생학습 개강식」에 참석하여 수강생들에게 폭넓은 학습을 통한 자기개발로 지역에 봉사하여 아름다운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줄 것을 주문하였다.



### 의정연구단체인 유비쿼터스 행정전략연구회 대표로 선출

**김희원**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칠곡군2, 한나라)은 2월 7일 국회에서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 유치를 위한 4개 시·도의회(특위)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3월내 입지선정 완료를 촉구하였고, 3월 29일에는 4개 시·도의회(특위) 공동으로 신공항 건설 백지화는 절대 불가하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2월 9일에는 의정연구단체인 유비쿼터스 행정전략연구회 대표로 선출되었으며,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입법정책능력 배양을 위하여 3월 30일 울진 덕구온천에서 개최된 입법정책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 김천시 소재 요양시설 방문, 요양시설 이용자에게 온정의 손길 베풀어 김천시 농업경영인 회장 이·취임식 참석, 농업경영인 노고 치하

**나기보** 농수산위원회 위원(김천시1, 한나라)은 1월 27일 김천시 영남요양원을 방문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운영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3월 8일에는 김천시 농업경영인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농업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소득증대 방안을 모색하여 살기 좋고 건강한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임원들과 모든 농업 경영인들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안계노인복지회관 증축공사 준공식」 참석,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니현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성군2, 한나라)은 1월 31일 의성 「안계노인복지회관 증축공사 준공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격려품을 전달하였다.

3월 24일에는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성문화회관에서 열린 「의성시니어클럽 2011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에 참석하여 참석자들을 격려하였다.



**「제17회 예천군민 민속놀이대회」 참석, 관계자 격려**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예천군1, 한나라)은 1월 26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예천지역 노인 요양시설인 경도요양원, 예천노인전문요양원을 방문하여 생필품 등 위문품을 전달하였으며, 시설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어르신들을 더 잘 모실 것을 당부하였다.

3월 4일에는 예천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7회 예천군민 민속놀이대회」에 참석하여 관계자 및 참석한 군민들을 격려하는 한편 군민화합의 한마당 잔치를 통해 귀중한 문화유산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청도군 여성단체협의회장이 · 취임식 참석하여 관계자 격려, 청도 새마을회 재활용품 모으기 경진대회 참석, 깨끗한 청도 실천에 앞장서**

**박권현**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청도군2, 한나라)은 3월 23일 청도군 소재 여성회관에서 열린 청도군 여성단체협의회장이 · 취임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선진강국으로 가기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진출과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하였다.

3월 31일에는 청도천 둔치에서 열린 폐자원을 모아 재활용하는 재활용품 모으기 경진대회에 참석하여 맑고 깨끗한 청도 만들기에 앞장서서 활동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 등 참석한 관계자들과 함께 화물차 800여 대 300톤의 폐비닐과 고철을 수거하였다.



**노인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여 사랑·나눔·봉사를 통해 함께 사는 세상 실천해, 동남권 신공항 밀양유치 위해 중앙관계기관에 1천만명 서명부 전달 및 국회에서 기자회견 가져**

**박기진**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성주군2, 한나라)은 1월 26일 설 명절을 맞아 성주군 금수면 소재 파티마 노인복지센터와 선남면 소재 우주봉의 집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입소하고 있는 장애인, 어르신들을 위로하였다.

3월 22일에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한나라당,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방문하여 신공항 유치 1천만명 서명운동 서명부와 청원서를 전달하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신공항 밀양유치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산내전담의용소방대 청사 준공식 참석, 산내면 주민의 안전지킴이로의 활동을 당부**

**박병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경주시1, 한나라)은 2월 23일 경주시 산내면 의곡리 소재 산내전담의용소방대 청사 준공식에 참석하여 지역 자율방재체계를 구축, 앞으로 산내면 주민의 안전지킴이로의 활동을 당부하였다.

2월 25일에는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에서 2011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하여 열정과 멋진 꿈을 꾸며 대학생활을 통해 그 꿈을 현실로 이루어 가기 위해 준비하고 노력해서 자랑스러운 동국인으로서 깨끗한 의지와 인내로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질 것을 당부하였다.



「제9회 영주소백산마라톤대회」 참석, 영주를 알리는 전도사 역할 하도록 주문

**박성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영주시2, 친박연합)은 3월 10일 「사단법인 영주시 이통장 연합회 제8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그 동안 이·통장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앞으로도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뛰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4월 3일에는 영주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된 「제9회 영주소백산마라톤대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이 대회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오는 선수들과 관람객들에게 영주를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줄 것을 주문하였다.



「제14회 영덕대게축제 개막식」 참석, 세계적인 명품대게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주문

**박진현**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영덕군2, 한나라)은 3월 2일 영덕군 영해면 일원에서 열린 「제27회 영해 3.1문화제 행사」에 참석하여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다양한 체험행사를 통해 군민들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3월 12일에는 ‘천년의 맛 세계의 자랑’이란 주제로 영덕 삼사해상공원에서 개최된 「제14회 영덕 대게축제 개막식」에 참석하여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세계적인 명품대게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다.



「구미교육 2011설명회 및 2010구미교육실적보고회」 참석, 교직원 격려

**박태환** 교육위원회 위원(교육5)은 1월 13일 구미교육 2011 설명회 및 2010구미교육실적보고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교직원을 격려하였다.

3월 15일에는 선산여고 학생들에게 “성공인과 실패인의 특성”이란 주제로 70분간 강의를 하여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였다.



대구지방환경청 방문, 김천 광천 의료폐기물 처리업 허가와 관련 지역 주민의 애타는 마음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당부

**배수향** 문화환경위원회 위원(김천시2, 한나라)은 2월 16일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하여 신임 송형근 청장을 만나서 광천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진행과정을 알아보고 김천 봉산면 광천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을 위협당하는 애타는 마음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3월 8일에는 농업인회관에서 열린 사)한국농업경영인 김천시연합회 제11대·12대 임원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한농연을 2년동안 이끌어 직전회장의 노고에 감사하며, 신임회장의 취임을 축하하였다.



구미시 장천면, 강동게이트볼 친선경기에 참석하여 지역주민들과 화합하는 자리 마련, 「경북도새마을회 2011년도 정기총회」 참석, 경북형 새마을운동 널리 전파 당부

**변우정** 농수산위원회 위원(구미시5, 한나라)은 1월 25일 설 명절을 맞아 구미지역 사회복지시설 성심요양원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관계자를 격려하였다.

3월 16일에는 구미시 장천면 게이트볼장에서 개최된 구미시 강동게이트볼 친선경기에 참석하여 회원간 친목도모와 우수한 기량을 보여줄 것을 당부하고, 3월 23일에는 경북도새마을회관 강당에서 개최한 경북도새마을회 2011년도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경북형 새마을운동을 세계 속에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경산과학고등학교 별마루 천문대 개관식」 참석, 학생들과 교직원 격려

**서정숙**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비례대표, 한나라)은 1월 25일 경산과학고등학교의 별마루 천문대 개관식에 참석하여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3월 7일에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홍보 차 방문한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을 맞이하고 무상급식 등 각종 교육현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협의를 하였다.



「6.25 참전 국가유공자 정책 간담회」 참석, 6·25 참전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 등 협의

**심정규** 교육위원회 위원(비례대표, 한나라)은 3월 30일(수) 대구인터블로그호텔에서 6·25 참전 유공자회 대구·경북지부장 및 시·군·구 지회장이 참석한 6·25 참전 국가유공자 정책 간담회에 참석하여,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평가와 안보 의미를 되새기고 6·25 참전 유공자들의 처우개선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남천면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중간보고회」 참석, 관계자 격려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경산시3, 한나라)은 1월 19일 경산시청에서 열린 남천면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중간보고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자연과 조화된 지역 균형개발 및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변지역과 연계한 발전계획 확대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2월 9일 경산시 신천동 소재 성락원 입구의 구제역 방역초소 등 5개의 방역초소를 방문하여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방역활동 중인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3월 29일에는 경산이 낳은 위대한 스승인 원효대사 특별전시회 개막전에 참석하여 원효대사의 위대한 저술과 삶을 기렸다.



「디스플레이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센터 준공식」 참석, 관계자 격려

**윤창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구미시2, 한나라)은 3월 4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단지 내 국산화 지원센터에서 개최된 「디스플레이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센터 준공식」 행사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경북지역 신성장동력 창출의 허브가 될 것을 주문하였다.

3월 28일에는 구미시 원평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3월 월례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전반적인 사업계획과 당면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건천읍 바르게살기 위원회 새봄맞이 환경정비」 활동 참여

**이 달** 교육위원회 위원(경주시4, 미래연합)은 3월 25일 경주시 건천읍에서 “경주 벚꽃마라톤 대회와 2011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건천면 일대를 중심으로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건천읍 바르게살기 위원회의 새봄맞이 환경정비활동에 참여하였다.

3월 29일에는 경주시 내남면 개발자문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여 지역개발 방안에 관하여 논의 하였다.



### 「제14회 문경세계정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 참석, 관계자 격려

**이경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비례, 친박연합)은 1월 14일 서울 불광동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전국여성신년인사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명박 대통령 내외분과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하였다.

2월 21일에는 문경 STX 리조트에서 개최된 「제14회 문경세계정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창립 총회」에 참석하여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 청정 영양사과 서울 판촉 행사 참석, 쌀전업농 경상북도연합회 제14차 정기대의원 총회 참석, 관계자 격려

**이상용**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영양군, 한나라)은 2월 23일 영양군 입암사과 연합단 이병철 회장 및 임원들과 함께 청정 영양사과 서울 홍보행사에 참석, 국회, 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직접 방문하여 FTA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정 활동을 하였다.

3월 18일에는 제14차 쌀전업농 정기대의원 총회에 참석하여 농업의 근간인 쌀농업을 지키는데 노력을 경주하는 대의원 및 참석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간담회를 통해 쌀농업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여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 범시민 친철운동 결의대회 참석,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을 기원

**이시하**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문경시1, 한나라)은 2월 25일 문경시민문화회관에서 열린 2015 세계 군인체육대회 성공기원을 위한 범시민 친철운동 결의대회 및 친철운동 특별강연회에 참석하여 한국의 신 중심 문경, 세계로 뻗어가는 문경이 될 것을 당부하였다.

3월 7일에는 문경 영강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문경문화학교 개강식에 참석하여 문화학교의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로 교육의 질을 높여주기를 당부하였다.



### 「6·25참전유공자회 경북지회 정기총회 및 안보결의대회」 참석, 국가 안보를 위해 지역에서 열과 성을 다한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

**이영식**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안동시1, 한나라)은 2월 16일 안동시 농업인회관 회의실에서 사)한국농업경영인 12대, 13대 임원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하였다.

3월 4일에는 안동예술의전당에서 열린 6·25참전유공자회 경북지회 정기총회 및 안보결의대회에 참석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에서 열과 성을 다한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방문하여 위문품 전달, 제4회 의성산수유축제 및 국제연날리기대회 참석, 관계자 격려

**이왕식** 농수산위원회 위원(의성군1, 한나라)은 1월 27일 설 명절을 맞아 의성지역 사회복지시설인 믿음의 집, 고운실비요양원, 의성효도마을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관계자를 격려하였다.

3월 27일에는 의성군 사곡면 화전리 산수유마을에서 개최한 제4회 의성산수유꽃 축제 개최식에 참석하여 지역 명품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3월 31일에는 의성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한 의성국제연날리기대회 2011 기풍제에 참석하여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 울릉군 저동항에서 열린 ‘어선 안전의날’ 행사에 참석, 관계자 격려

**이용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울릉군, 한나라)은 2월 1일 울릉군 저동항에서 열린 ‘어선 안전의 날’ 캠페인 행사에 참석하여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각종 장비점검의 생활화와 구명동의 착용 등에 대한 홍보계도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3월 30일 독도선착장에서 개최된 일본 교과서 왜곡관련 독도현지 규탄대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독도와 관련된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하였다.



### 경북도, 포항 천주교, 불교 합동 신년교례회 참석, 현안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 나누

**이정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포항시7, 한나라)은 2월 11일 포항목하예식장에서 천주교와 불교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신년교례회에 참석하였다.

또한, 3월 17일 포항시청에서 열린 내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도의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3월 31일에는 포항영일만 일반산업단지내 포스코 파워 연료전지공장 준공식에 참석,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영남권 3개 시·도 유치추진위원회」 참석, 유치 결의 다져

**장경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포항시5, 한나라)은 1월 25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개최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영남권 3개 시·도 유치추진위원회」에 참석하여 유치결의를 다지며 반드시 우리 지역에 유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월 26일에는 서울 KOTRA에서 개최된 「경상북도 투자유치 서울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투자유치서울센터가 경북투자유치의 허브역할을 잘 감당해 도민의 일자리 창출 증대에 힘써 줄 것을 주문하였다.



### 「포항출신 대학생 설 귀향 초청강연회」 참석, 의정활동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함

**장두욱**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포항시3, 한나라)은 1월 28일 설 명절을 맞아 포항지역빛살 아동센터, 선재원, 기쁨의집, 붓다요양원, 실버힐하우스, 한사랑의집, 유락원 등 사회복지 시설 7곳을 방문하여 입소자 위로 및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또한 2월 1일 사단법인 한국미래청년포럼에서 개최한 포항출신 대학생 설 귀향 초청강연회에 참석하여 의정활동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고향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당부하였으며, 3월 17일 포항시청에서 열린 2012국비지원사업 보고회에 참석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모두 합심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2011 대구·경북 통합방위협의회의 회의 참석, 민·관·군·경 통합방위 태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 나누

**장세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포항시4, 한나라)은 3월 17일 포항시청에서 열린 내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도의원 초청 간담회에 참석, 현안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3월 24일에는 대구·경북 통합방위협의회의 회의에 참석,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주민보호 및 통제 방안, 지진, 원전사고 대응책 등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 받았다.



### 「대한산악연맹 경북구미시연맹 정기총회」 참석, 관계자 격려

**장영석** 건설소방위원회 위원(구미시4, 한나라)은 2월 11일 구미 GM컨벤션웨딩에서 열린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경북구미시연맹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회장 이·취임에 따른 전임 회장단의 노고를 치하하고 신임 회장단을 격려했다.

또한 3월 8일 구미경찰서에서 열린 ‘한마음 의료지원’ 협약 체결행사에 참석하여 다문화가족과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결혼이주 여성의 한국사회 적응과 다문화가족의 건강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이 협약에 따라 다문화가족이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및 의료보험 비적용 본인부담금의 20%를 감면받게 된다.



### 「녹색생활실천다짐대회」 참석, 친환경 그린도시 구현을 위해 생활실천을 적극 추진 당부

**전인철** 문화환경위원회 의원(구미시1, 무소속)은 2월 25일 선주원남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녹색생활실천다짐대회」에 참석하여 친환경 그린도시 구현을 위해 녹색생활실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3월 7일에는 구미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열린 한국예총 구미지부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축하의 자리를 함께 했다.



### 구제역 발생현황 및 향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상황실에 참석, 대책 논의

**전찬걸**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울진군1, 한나라)은 2월 5일 울진군 평해읍사무소 구제역 방역대책 임시상황실에 국회의원, 울릉군수,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제역 발생현황 및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다.



### 2011학년도 경북도립대학 입학식 참석, 전문기술인 양성, 경북 명품사과 선적식에 참석, 경북사과의 우수성 널리 홍보 당부

**정상진** 농수산위원회 위원(예천군2, 한나라)은 1월 26일 설 명절을 맞아 예천지역 노인요양시설인 경도요양원, 예천노인전문요양원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봉사하는 시설 관계자를 격려했다.

3월 2일에는 2011학년도 경북도립대학 입학식에 참석하여 신입생 및 학부모에게 지식기반사회 전문기술인 양성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3월 4일에는 대구경북농금조합 예천지소에서 개최된 경북 명품사과 선적식에 참석하여 경북사과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홍보하여 수출판로 개척에 힘써달라고 당부하였다.



### 「성주군농업경영인회장단 이·취임식」 참석, 농업CEO로서 성주 농업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당부

**정영길**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성주군1, 한나라)은 3월 3일 농업인회관에서 개최된 「성주군농업경영인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신지식 농업을 선도하는 농업CEO로서 성주 농업을 멋지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3월 25일에는 낙동강 24공구 소화지구에서 열린 「낙동강 희망의 숲 조성」 식수 행사에 지역 주민들과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성공적인 낙동강살리기 사업 추진으로 보다 나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포스코 교육재단 설립 40주년 기념식」 참석, 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

**채옥주**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포항시6, 한나라)은 1월 27일 포항 남구 효자아트홀에서 열린 「포스코 교육재단 설립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3월 3일에는 포항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포항 여성문화회관 교육 개강식」에 참석하여 축하하고 행사 관계자들과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 「경주지역사회교육협회의 부모교육」 강의, 부모와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법의 이해 증진

**최우섭** 교육위원회 위원(교육2)은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경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강의실에서 “부모-자녀와의 대화법”, “자녀의 숨겨진 미덕(virtue)을 찾아주는 버추프로젝트”, 자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NLP프로그램 “맞춤식 의사소통 방법 이해를 위한 에니어그램”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중학교 입학예정자에 대한 부모와 함께하는 “주니어 성공도와 주기” 워크숍을 통하여 습관, 리더십, 원칙, 패러다임, 자성예언, 효과성, 성품과 성격 등 7가지 습관을 개발 하는데 필요한 기초교육을 함으로써 중학교 학생에게 용기와 지혜를 갖도록 하는 강의를 하였다.

3월 28일에는 교육위원회 서정숙 부위원장과 경산지역 특수학교 신설에 따른 민원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현지방문을 하고, 경산시와 경산교육지원청 간 긴밀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 경주시 안강읍 구제역 방역초소 방문 방역활동 관계자 격려, 천북단지 입주 징크스사 주민설명회 참석, 철저한 환경관리방안 마련 당부

**최학철** 농수산위원회 위원(경주시3, 한나라)은 1월 13일 경주시 안강읍 구제역 방역초소 3개소를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가축방역 관계자 격려와 함께 가축질병이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활동을 당부하였다.

3월 3일에는 경주시 천북면 오아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천북단지 입주기업 징크스사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분진 등 환경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환경관리방안을 당부하였다.



### 일선 교육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파악 및 직원 격려

**추재천** 교육위원회 위원(교육3)은 1월 12일 칠곡 매원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실부족 현황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협의하는 한편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2세 교육에 정진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격려했다.

1월 19일에는 김천교육실적보고회에 참석하여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행사 준비에 노고가 많은 직원을 격려했다.



### 상주청년회의소 창립 42주년 기념식 참석,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한재석**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상주시1, 한나라)은 1월 26일 설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인 상주 보육원, 청봉산요양원, 상주보림원, 희망실버타운 등을 방문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위문품을 전달하였으며, 시설종사자와 면담을 통하여 시설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또한 3월 9일에는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3개 공공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게 되었다.

3월 12일에는 상주청년회의소 창립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설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방문, 위문품 전달, 흥해향토청년회 회관 준공식 및 포스코파워 연료전지스택제조 준공식 참석, 관계자 격려

**한창화** 농수산위원회 위원(포항시1, 한나라)은 1월 28일 설 명절을 맞아 포항 지역빛살아동센터, 선재원, 기쁨의집, 붓다요양원, 실버힐하우스, 한사랑의 집, 유락원 등 사회복지시설 7곳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3월 20일에는 흥해향토청년회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흥해향토청년회 회관 준공식에 참석하여 회관 준공을 계기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3월 31일에는 영일만 산업단지에서 개최된 포스코파워 연료전지스택제조공장 준공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 「북안면 버들숲 작은도서관 개관식」 참석, 축하메시지 전달

**한혜련**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영천시1, 한나라)은 2월 21일 성덕대학에서 열린 「재활승마 활성화 비전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격려사를 통해 재활승마의 보급화와 대중화를 유도하는데 힘써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동물매개치료의 효과가 전국에서 최고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였다.

3월 29일에는 영천 북안면 구 보건지소에서 개최한 「북안면 버들숲 작은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축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어린이들에게 독서공간을 제공하여 사랑받는 작은 도서관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 「안동, 청송교육지원청 2010 교육실적보고회」 참석, 수상자 축하 및 관계자 격려

**홍광중** 교육위원회 위원(교육4)은 2월 8일 안동, 청송교육지원청의 2010 실적보고회에 참석하여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행사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2월 10일에는 풍산고등학교, 길주중학교, 문경공업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또한 2월 22일에는 안동시장학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장학회 운영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 노인복지시설인 성누가요양원 방문, 노인들과 시설종사자들을 위로·격려

**홍진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군위군, 한나라)은 설 명절을 맞아 1월 25일 공군 제8196부대를 방문하여 영하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 국방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군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1월 26일에는 노인복지시설인 성누가요양원을 방문하여 노인들과 시설종사자들을 위로·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또한 3월 30일에는 울진 덕구온천에서 개최된 입법정책 세미나에 참석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입법정책능력 배양을 위하여 항상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구현과 주민밀착 의정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하였다.



##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 갖고, 주요 현안 사업 및 민원 사항 청취

**황이주**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울진군2, 한나라)은 3월 14일 근남면, 15일 원남면, 23일 평해읍과 온정면, 25일 후포면사무소에서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지역 주요 현안 사업 및 민원 사항을 청취한 후 주민화합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낼 것을 당부하였다.

3월 14일에는 후포새마을금고에서 열린 「울진군의용소방대 후포여성대장 이·취임식」에 참석,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축사를 통해 "주민들의 행복지수는 소방대원들의 수고로움과 비례하는 만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3월 28일에는 한나라당 울진군 읍면협의회장들과 함께 한국수력원자력(주)울진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최근 발생한 일본 지진과 지진 해일에 의한 피해 여부 및 발전소 운영 상황을 청취한 후 원전의 안전 운전과 운영상황 주민공개 강화 등을 주문하였다.



“경북의 명품 트레킹”

발길이 머무는 어디든 - 경북을 만나다.

# 어서오이소!

## 맨발로 걸어보자 문경 고갯길

### 문경새재 과거길

영남대로에서 가장 높고 험한 이 고개를 요즘엔 사람들이 맨발로 넘고 있다. 그래서 조선 최고의 트레킹 코스라는 별명까지 나오고 있으며 건설교통부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으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문경새재의 트레킹은 새재 제1관문에서부터 시작된다. 우선 1코스인 제1관문~제2관문 사이의 3km가 나타난다. 이 사이에 KBS 촬영장, 지름틀바위, 조령원터, 주막, 팔왕폭포, 교귀정, 조곡폭포 등이 있다. 다리 힘이 닿는다면 제2코스인 제2관문~제3관문의 약 3.5km를 걸으면 조곡약수, 이진터, 동화원, 책바위, 군막터 등이 있어 걸음을 무료하지 않게 해준다. 또한 맨발로 걷는 사람들을 위해 일부러 발 씻는 곳을 만들어 두었다.



제1관문(주출판)



제2관문(조곡판)



제3관문(조령판)



KBS 오픈세트장



### Tip\_ 문경새재 이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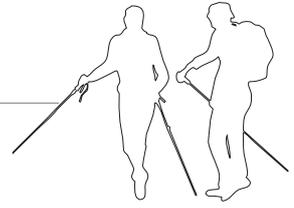
경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부내륙고속도로 → 연풍IC 34번 국도 → 문경새재  
문경새재도립공원 <http://saejae.mg21.go.kr> T. 054-571-0709

### Tip\_ 문경 과거길 달빛사랑여행

봄~가을(4월~10월) 매달 2회씩 토요일에 이뤄지고 있는 달빛사랑여행은 푸른 달빛을 받으며 문경새재 제1관문에서 제2관문으로 이어지는 왕복 6km의 보드라운 흙길을 걷는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황홀하다. 20~30명이 1조가 되어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밤길을 걷게 된다. 과거시험 이벤트도 열어 급제자에게 시상도 한다.

문경문화원 [www.mgmtour.co.kr](http://www.mgmtour.co.kr) T. 054-555-2571

# 경북!



### 철로자전거

20여 년 전 석탄을 실어 나르던 철로를 변모시켜 전국 최초로 철로 위를 달리는 '철로 자전거'로 관광 자원을 개발했다. 경북 팔경 중 제1경으로 꼽히는 진남교반과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강과 터널이 달리는 내내 눈을 즐겁게 해준다.

장소: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126-1(가은읍 왕릉리 73-6)  
TEL 054)553-8300(진남역) / 054)571-4200(가은역) www.mgtpcr.or.kr/railroad\_cycling



### 관광사격장

도심을 벗어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이색스포츠인 클레이 사격, 권총, 공기총 등을 즐길 수 있다. 넓은 들판과 활 트인 주변 환경에서 즐기는 스포츠인만큼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체험장이다.

장소: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동 산10-1 TEL 054)553-0001 www.shooting-gallery.or.kr



### 활공랜드

2인조로 하늘을 날는 tandem 비행(Tandem flying)은 비행에 관한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는 뉴우라도 당일 바로 비행할 수 있으며 숙련된 교관과 함께 비행한다. 국내 100대 명산 중 4대 명산이 둘러싸여 있어 비행 중 색다른 풍경을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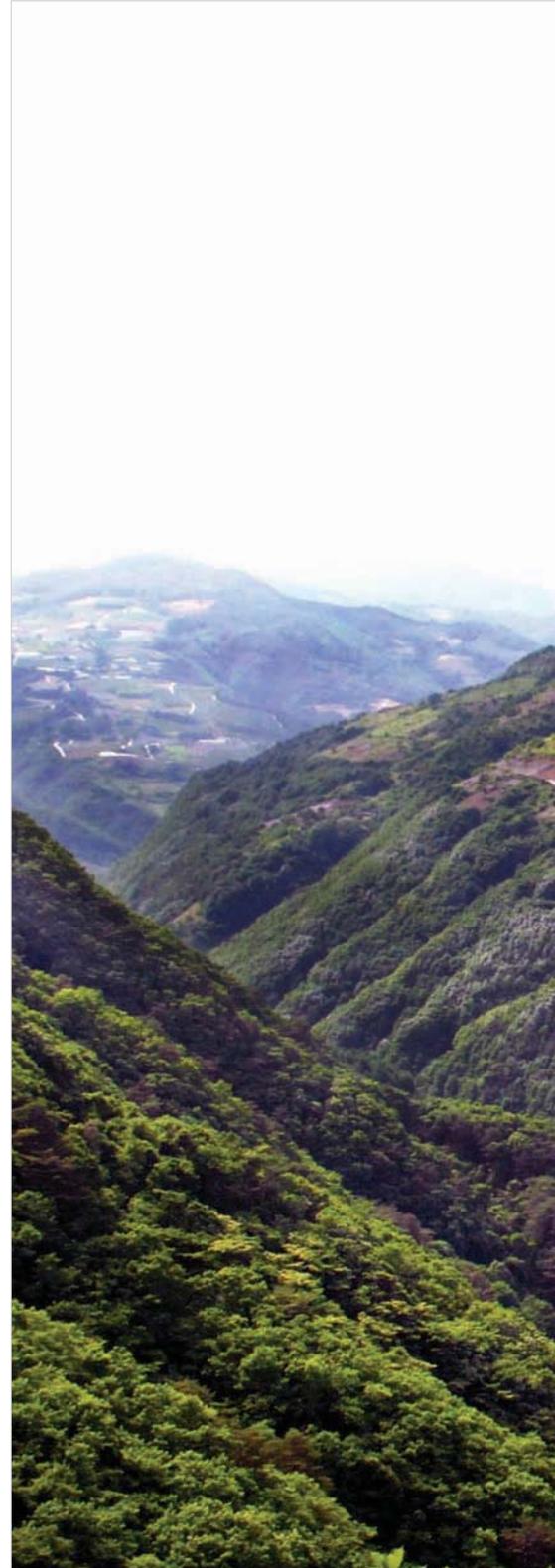
장소: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교요리 518 TEL 054)571-4675 www.flyingland.co.kr

“경북의 명품 트레킹”

발길이 머무는 어디든 - 경북을 만나다.

# 어서오이소!

## 영남의 소금강 **봉화 청량산**



# 경북!

## Tip\_ 청량산 이용방법

경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남안동IC (서안동IC) → 도산서원 → 청량산도립공원

☑ 청량산도립공원 T. 054-679-6653  
<http://mt.bonghwa.go.kr>

## Tip\_ 청량산도립공원의 청량산박물관

청량산을 배경으로 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지역 홍보자료를 한 곳에 모아 전시함으로써 봉화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는 물론, 지역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군민 정서함양의 계기를 마련하고 청량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탐방문화를 제공하여 자연체험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함과 아울러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를 조성하고자 건립하였다.

주소 :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 1726-6  
TEL 054)679-6671 <http://mt.bonghwa.go.kr>



### 영남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청량산

산세는 크지 않으나 연이어 솟은 바위봉우리와 기암절벽이 어울려 예로부터 소금강 또는 3대 기악의 하나로 꼽힐 만큼 산세가 수려하다. 무수한 바위봉들이 솟아 소위 절승 12봉을 꼽으며 또 김생굴을 위시하여 동굴이 8개소나 있고 골짜기에는 이름난 소(沼)가 네 군데나 된다. 산행은 청량산 휴게소 아래 입석에서 시작한다. 노송이 우거진 등산로를 따라 오산당과 내청량사를 거쳐 주봉우리인 장인봉 정상에 오르면 낙동강과 청량산 줄기를 내려다볼 수 있다. 하산은 보살봉과 김생굴, 외청량사를 지나 다시 입석으로 내려오는 길이 잘 알려진 코스이다. 이밖에 광석나루에서 시작해 내청량사를 지나 정상에 오른 뒤 외청량사를 지나 이름실로 내려오는 코스와, 남면리에서 시작해 외청량사와 김생굴, 경일봉을 지나 정상에 오른 뒤 내청량사, 오산당을 지나 광석나루터로 내려오는 코스가 있다.

# 언론에서 본 의정활동

대구신문 | 1. 3

## “도민 이익 위한 밀착의정 실행”

### 이상호 경북도의회 의장, 2011 의정활동 방향 제시

지난해 6월 출범한 제9대 경북도의회는 이상호 의장과 황상조·송필각 부의장을 정점으로 의회 위상정립을 통한 대 집행부 관계 재정립, 공부하는 의회상, 도민과의 소통강화, 도민이익 대변 등을 중점 과제 선정 후 이를 달성하는데 주력,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이상호 의장은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는 한편 열린 마음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크게 듣고 이를 적극 수용, 경북도 정책에 반영했으며 특히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위한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폈다”고 돌아봤다.

이 의장은 2011년 신묘년 경북도의회 운영과 관련, 항상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밀착 의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이를 위해 도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의원 역량을



이상호 경북도의회 의장이 2010년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2011년 구상을 밝히고 있다.

인 동남권 신공항 밀양 유치에 대해서는 총력 매진을 다짐했다. “영남권 시도 의회 및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밀양 신공항 유치정책을 추진

3건에 대해 시정처리 및 대안을 제시했다.

3회에 17명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67건의 현안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내놨다.

기획경제위 등 각 상임위원회는 135일간의 회의를 통해 300건의 조례안 등 각종 회부 안건을 처리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바로미터로 인식되고 있는 의원 입법활동도 활발해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경북도세 감면조례, 경북도 무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경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북도 농어업인대상 조례 등 주민 복지와 관련된 각종 의원발의 안건을 통해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중 정책연구위원회 출범은 의원들의 입법·정책 기능 강화 측면에서 좋은 시도로 평가됐다.

정책연구위원회는 지방의회가 전문성을 갖춘 정책의회로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토대는 전문적 입법 및 정책관련 정보와 분석을 얻을 수 있는 지방의회의 정책연구조직의 활성화란 인식에서부터 출발됐다.

따라서 경북도의회는 전문연구인력을 중심으로 하는 입법정책지원팀을 신설, 업무진행이 없는 상태에

경북일보 | 1. 7

## “피해 농가 조기 지원 노력”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6일 폭설로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을 찾아 피해현황을 청취하고 피해농민들을 위로 격려했다.

이상용 위원장 등 농수산위원들은 이날 비회기 중임에도 피해가 극심한 포항시 청림동 피해 농가를 방문, 현장을 둘러보고 농민을 위로 격려하는 한편 농민들과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도내에서 이번 폭설로 포항시 청림

동, 동해면과 경주시 강동면 등 2개 시군 3개 읍면 259농가의 비닐하우스 2천700여동이 전파 또는 반파됐으며, 117ha의 시금채 작물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이번 폭설에 대해 조속한 지원과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피해 농작물에 대해 시정처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왕송복기자 wang

매일신문 | 1. 25

### 한우·돼지고기 소비촉진 시식회

#### 경북도의회

“한우, 돼지고기 안심하고 드세요.” 구제역 발생으로 소비문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업계를 돕기 위해 경북도의회가 시식회를 마련했다.

이상호 경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상임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의회사무처장과 간부공무원 등 40여 명은 24일 낮 12시 대구시내 한 식당에서 ‘우리지역 쇠고기·돼지고기를 먹고, 우리 축산 농가 살리기’ 시식회를 가졌다. 이상호 의장은 “구제역은 사람에게에는 전염되지 않고, 쇠고기·돼지고기 섭취에 의한 인체 감염 위험은 없으



며, 55℃에서 2분(61도에서 30초) 이상 가열하게 되면 전염성은 전혀 없다”며 “구제역 확산으로 시름에 잠겨있는 축산농가에게 희망을 주고 소비자들에게 구제역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에 도의회가 앞장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경상매일신문 | 1. 5

# “경북 발전에 최대한 지원”

## 박근혜 전 대표, 경북도 첫 방문... 오늘 대구시 찾아

한국일보 | 2. 8

### “동남권 신공항 밀양이 최적지”

#### 영남권 4개 시·도의회 특위, 上京 홍보전 퍼

정부의 동남권 신국제공항 입지 선정이 다음달로 예정된 가운데 후보지인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을 놓고 지차단체간 막판 유치전이 불을 뿜고 있다.

경남도의회 동남권신국제공항조기유치특별위원회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대구·울산시의회, 경북도의회와 함께 동남권 신공항 밀양 유치를 위한 특위 공동기자회견과 특위위원장 식발 퍼포먼스 행사를 갖고 밀양 유치의 당위성을 알렸다.

최고의 입지조건을 갖춘 밀양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또 "입지여건 비교에서 공역(空域) 제한과 장애물, 조류 충돌 가능성 등 안전성과 접근성, 항공수요, 장래 확장 가능성, 공사비 등 경제성, 토지이용 등 환경성 면에서 밀양이 가덕도 보다 비교우위에 있다"며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고 국가경쟁력 확보와 영남권 공동 발전 및 상생을 위한 대승적 관점에서 밀양으로 결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위는 "4개 시·도는 신공항 입지 선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밀양

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의 경북도청 및 경북도의회 방문에는 이인기, 함, 이철우, 이한성, 정해걸, 김, 이해봉, 조원진, 이정현 위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상 오 후 박 전 대표는 경북도

청 및 경북도의회를 비롯해 경북노인회, 경북소방본부 등을 방문했으며 앞서 오전 11시에는 한나라당 여성정치 아카데미 신년교례회에 참석하는 등 바쁜 하루 일정을 소화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지난 3일 오

후 달성군청에서 열린 '2011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2박3일 일정으로 대구를 방문했으며 이날 경북도청을 방문한 박 전 대표는 5일에는 대구시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대백 기자 kimdb@gsmnews.co.kr



매일신문 | 2. 9

### 경북도의회 '과학벨트' 유치지원 조례 발의

#### 예산배정·공무원 파견 등

경상북도의회 의원들이 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선다. 경북도의원 19명은 9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 4월 입지가 결정되는 과학벨트 유치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이 18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경북도는 과학벨트 유치를 위해 예산배정과 공무원 파견 등 행정적 지원에 앞장선다. 또 이날 도의회는 과학벨트 유치 촉구를 위한 본격적

황이주 신공항과 담보할 수 있다. "이들은 근거가 있을 발의할 수 있을 의원 대표)은 5 시설 광역 을 촉구했

대구연합일보 | 2. 11

### 의원의정연구활동 4개 연구단체 출범

#### 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에 의원 의정연구활동을 위한 연구단체가 출범했다.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에 의거, 초재선의원들이 고부 참석하는 4개 연구단

(대표 김희원 의원)도 결성됐다. 이들 단체들은 조만간 외부전문가를 정책연구위원으로 위촉, 연구단체별로 자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한 뒤 10월말까지는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연구발표회를 가질 계획이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의원들 스스로 연구하는 자세를 확립하고 입법정책연구활동이 실질적인 조례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등 의정활동 전반에 활기를 뿜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

경도일보 | 2. 22



### 경북의회농수산위원회 울진군 폭설 피해지역 현황 청취·농민 위로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상용)는 21일 지난 11일에서 14일 사이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울진군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부추, 시금치 등 농작물과 돼지, 양봉 등 축산농가의 폭설 피해현황을 청취하고 농민들을 위로 격려했다.

폭설로 울진군 근남면과 서면 일원에 비닐하우스 175동, 축산시설 116동, 농산물저장고 24동 등 농업관련 시설 피해와 부추 및 시금치 7.1ha, 마나리 1.1ha, 고추 등 농작물, 돼지, 양봉 등의 가축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 언론에서 본 의정활동

매일신문 | 3.1

## “심사위원들 사전공개 이유 뭔가 건축분야 왜 유독 점수편차 크나”

경북도의회, 신청사의혹 추궁

경북도청 및 도의회 청사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문제와 관련해 경북도의회가 28일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경북도의회 소속 건설위원회와 도청이전지원 특별위원회는 이날 연석회의를 열고 시공업체 심사과정과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참가위원들은 심사위원을 사전에 공개한 점, 특정 심사위원의 점수

편차가 지나치게 큰 점 등 언론을 통해 문제가 불거진 부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박진현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장(영덕)과 장두욱 의원(포항)은 심사위원 사전 공개, 심사위원을 15명으로 선정한 기준, 점수를 높게 매긴 특정교수가 시공업체 선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따져 물었다. 또 윤성규 의원(경산)은 사전 공개로 인한 로비 가능성을 따졌고 김수용 의원(영천)은 다른 분야는 0.2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비해 건축계획분야만

1.2점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지난 2009년 말 바뀐 건설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북도 안전총괄 건설도시방재국장은 “평가점수 산정은 종전에는 전체분야를 심사해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합산평균점수를 적용했지만 2009년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르면 심사위원이 전문분야만 심사를 하도록 돼 있다”며 “심사위원 역시 미리 선정, 공개하도록 개정됐다”고 밝혔다. 또 “문제가 되는 건축계획분야 평가결과에 대해 김 모 위원이나 이를 평균한 결과 실제로 1.2점이 반영되었고 이 역시 특정업체 낙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수다”고 해명했다.

고우명(문경) 건설소방위원장은 “각종 의혹들에 대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서도 “앞



영남일보 | 3.7

안동 구제역 100일

## 백신·매몰지 후폭풍...축산 시스템 선진화 ‘새 기회’

지난해 11월29일 안동시 와룡면 서현영단장지의 2개 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불과 100일만에 경북도 내 16개 시·군으로 확산됐다. 이 때문에 살처분된 우체류는 6일 현재 도내에서만 42만5천800마리(2만4천8백가), 이를 가족의 살처분 보상금(4천 원)에 육박한다. 구제역이 발생한 거나 가...과 경영안정자금까지 포함하면 구제역과 관련해 농가에 지급 될 자금은 4천억원에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확산으로 인한 ‘환경 재앙’이 발생할 가능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와 이 관련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자녀친 리 장”이란 입장을 밝히면서도 매몰지 주변의 이산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비가 자주 내릴 경우 매몰지 침출수의 유출 위험은 더욱 심각해지고, 이로 인한 주변 지하수나 하천의 오염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이를 고려해 매몰지 주변 300m 이내



지난 2일 안동시 와룡면 서현리 구제역 매몰지를 방문한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의원들이 공무원으로부터 매몰지 사후관리대책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구제역 종식 빠르면 울 상반기, 해 넘길수도 ‘경고’  
가축질병 즉각적 대응·자연친화적 생산체계 구축  
대량 매몰지 특별관리지역 선정, 수질검사 등 강화

에 있는 관청에 대해 종합조사를 벌이는 한편, 시급한 정도에 따라 매몰지 주변의 상수도 공급을 중단중이다. 하지만 매몰지 인근 주민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매몰지 주변 농민들은 “기온이 점점 올라가 매몰지에서 유출되는 지진동하고, 폭우로 인한 매몰지 붕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는 매몰지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진 축산업으로의 새로운 도약  
경북도는 이번 구제역 사태를 계기로 경북 축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로에 섰다고는 입장이다.

도 축산업 허기세를 도입, 완벽한 방역시스템을 갖추지 않고서는 축산업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강박관념을 깨고 있다. 필요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축산농가도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젊은 면역에 많은 가족을 사육하는 기존의 밀집사육 시스템에서 벗어나 동물복지, 친환경 목장 등 융복합 선진시스템을 도입해 고용·환경·축산물 생산에도 나날이 요구되고 있다.

◆장부·지체, 매몰지 관리에 돌린  
매몰지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는 가운데, 경북도는 현정 상황...에 따라 특별(1.63억)·중형(1.06억)·일반(825억) 관리지역으로 매몰지를 나눠 관리키

대구일보 | 3.17

## 경북도의회, 일본 돕는다 서한문 발송·성금 모금

경북도의회가 일본의 대지진 참사와 관련 주한일본대사에게 애도를 표하는 등 일본 돕기에 나섰다.

경북도의회 의원 63명은 16일 주한일본국대사에게 일본 대지진 피해 관련 희생자와 이재민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합니다라는 내용의 서한문을 발송했다.

또 의회사무처 직원과 함께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피해 돕기를 위한 성금 300만원도 모금했다.

경북도의회 이상호 의장은 “대지진과 쓰나미, 원전 폭발로 피해를 입은 일본 국민들에게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일본인에게는 우리의 작은 정성이 큰 힘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일본이 빠른 시일 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다 같이 정성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 ◆꽃이길 잃은 구제역

그렇지만 영동은 물론, 경북도내 축산농가를 보호하기엔 구제역의 종식은 이제 눈앞에 왔을지. 전문가들은 폐지를 중심으로 구제역 살처분 후에도 발병이 계속

연명되고 있어, 종식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백신 2차 접종 이후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는 24농가에 이른다. 이에 따라 살처분된 돼지만 1만2천마리를 넘어섰다. 지난 5일에는 영천시 청량면 죽전리, 6일에는 청량면 용천리에서 잇따라 구제역 의심사...가 접수되는 등 구제역 발생 및 의심신...을 잇고 있다.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구제역을 종식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들은 빠른 속도에 실패해, 늦으면 해를 낼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구제역 못지않게 살처분 매몰지의 오염

도, 매몰지 수시점검으로 위험을 제거한다. 특히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은 취수원 및 낙동강 연접 매몰지 58곳에 대해서는 차수벽과 배수로, 옹벽 등의 방어선을 구축하는 등 특별관리에 나선다. 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리와 먹는 물 대책도 내세웠다. 경북도 관계자는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불안감을 종식시키기 위해 매몰지 주변 지하수에 대해 월 2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매몰지 반경 300m 이내의 지하수 1천 222곳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 문제가 드러나면 폐공 또는 대체관정을 마련키로 했다”며 “시달이 60여원을 투입, 매몰지 주변의 상수도공사를 오는 9월까지 완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영남일보 기자 yun@idaegu.com



# “신공항 밀양유치 위해 온몸으로 뛰니다”

구자근 도의원 마라톤 대장정... 19일간 대구~서울 340km 달려



‘동남권 신공항 밀양유치’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현직 도의원이 전국 수백km를 달리는 마라톤 대장정에 나선다.

대구·경북·울산·경남 등 4개 지역 민들의 염원이 담긴 ‘신공항 밀양유치’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배치화되거나 전면 재검토될 수도 있다”는

직접 기획한 것이다. 한나라당 구자근 경북도의원(44·구미갑·사진)은 9일 오전 대구 북구 산격동 경북도의회 앞마당에서 ‘영남권 신공항 밀양유치 및 조기건설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한 뒤 19일간의 일정으로 경북 구미·문경, 충북 괴산, 경기도 이천 등을 지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총 340km 거리를, 1일 20km 이상 달리는 대장정에 돌입한다.

마라톤클럽 소속회원으로 나서 힘을 보태며 이 구 의원은 신공항 밀양유치를 각 지역민들에게 전하고 있다. 그는 “서울까지 340km를 달리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1320만 영남권 주민의 염원을 전국에 알리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완주하겠다”고 말했다. 최수호 기자

## 경북도청·도교육청 추경예산 심사

경북도의회, 16일~30일까지 15일간 임시회 진행

‘구제역·매몰지 환경오염·원전사고 대책도 따진다’

경북도의회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임시회를 열어 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2011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민생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예산은 각각 3401억8000여만원, 2056억2000여만

종식과 매몰지 환경오염, 지진, 쓰나미, 원전 사고 대비책 등에 대한 도정질문도 벌인다. 임시회 진행에서 도의회는 18일~24일까지 상임위, 25일~29일까지 예산결산특위, 30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의 등 도와 도교육청의 현안 과제를 점검처리할 계획이다.

##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등 현지확인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효)는 21일 제2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6일째를 맞아, 상임위원회를 열어 경상북도 각 실국별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도내 현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위원장 권영만)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도내 노인전문요양병원 4개소를 방문, 운영 실태와 예산사항 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실시하는 현지확인 방문은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노년기 만성질환이나 장애로 고생하는 노인분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 어르신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애쓰는 노인요양병원의 운영을 살펴봄으로써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의정활동에 최대한 반영한다.

이번 현지확인(포천, 경산 김천 안동에서 시설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시설을 둘러보았다. 행정보건의복지위원들은 입소자

현황, 입소대상자 및 입소절차, 보조금 지원현황, 주요 프로그램 등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시설운영에 따른 예산사항을 청취하고 시설 입소자인 어르신들을 위로·격려했다.

한편, 권영만 행정보건의복지위원장은 “최근 자료(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2010년 12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0.9%이며, 도내 대부분의 군지역에서는 고령인구가 20% 이상으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어르신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노인전문요양 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며, 각종 노인복지 정책과 저소득층 노인의 삶을 위해 우리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의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장세현)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경주 세계대관도 선수권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세계물포럼 유치 결의대회 참석과 영일만항 개발현장, 강구항 대개거리 경관조성 사업현장, 생활체육공원 강구 축구장 현장을 둘러보는 현장중심의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를 통한 현장 방문은 첫날 21일에 세계대관도 선수권대회가 개

최되는 현장을 방문, 최양식 세계대관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장(한경주시장)과 관련 직원들을 격려하고 한달 앞으로 다가온 세계대관도선수권대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엑스포 공원에서 제19회 세계물의 날 기념식에 참가해 2011년에 개최 될 제7차 세계물포럼 유치결의를 다지는 한편, 화물물류의 메카인 포항영일만항 주식회사를 방문하여 컨테이너 화물유치 현황을 파악하고 관계직원들을 격려했다.

22일은 현재 조성중 에 있는 영덕 강구항대개거리 경관조성 및 생활체육공원 강구축구장 현장 확인을 통해 강구항 주변을 특색 있는 경관으로 조성하는데 지질 없도록 당부했다.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상용)는 21일 농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원과 농수산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세출예산에 대한 심사했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유현)는 21일 낙동강살리기 사업단 및 건설도시방재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가졌다.

문봉민 기자 mbh@seoulilbo.net

## “의정 활동 강화 개선방안 모색”

풀뿌리연구회·지방자치발전연구회 교류협약



경북도의회 위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의원연구단체 ‘풀뿌리연구회(대표 박진현 의원)’는 10일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지방자치발전연구회(대표 조양민의

과시키는 등 그 어느 시·도의회보다 의정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두 연구단체 간 교류협약이 어떤 새로운 시너지효과를 만들어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진현 의원은 “풀뿌리연구회는 의원연구활동을 통해 지방의회 의



이상효 경북도의회 의장(가운데)과 의원들이 30일 오후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발표를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 “지역갈등만 조장 용납할 수 없다”

■ 경북도의회

이상효 경북도의회 의장과 의원들은 30일 동남권 신국제공항 백지화 발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북도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정부부는 입지평가위원회의 실사와 평가결과와 공표 이전에 신공항 백지화를 중앙언론에 흘려 민심을 동요케 하더니, 결국 백지화함으로써 영남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완전히 저버렸다”면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는 △정부부는 2009년에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미리 내어 놓고도 이제까지 두 후보지를 대상

으로 입지 선정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간의 혐애한 갈등만 조장하고, 엄청난 사회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게 한 데 대해 백지화 사유를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공개하라 △동남권 신국제공항 백지화에 대한 평가결과와 항목·가중치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전 국민에게 공개하라 △입지평가가 완료되기 전 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기류는 언론에 흘러 민심과 여론을 조장한 당사자들은 영남지역주민들 앞에 사죄하라 △동남권 신공항 무용론을 즉각 철회하고, 신공항 건설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라는 4개항의 요구사항을 채택했다.

정영자기자 yj@yeongnam.com

생태, 문화, 경제가 흐르는  
낙동강

강을 따라 푸르른 자연이 살아나고,  
찬란한 문화와 역사가 함께하는...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고, 우리의 경제가 살아나는  
낙동강 700리 희망의 그날이 다가옵니다.



도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 더불어 함께하는 열린 '경상북도의회'

경제가 흐르는 낙동강! 희망이 넘치는 낙동강!  
경상북도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http://council.gb.go.kr>